

제7권 제4호

ISSN

1599-9009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05. 4/4

제 목 차 례

2006년 에너지 수요 전망

요 약	1
I.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9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9
2.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13
3. 석유제품 소비 동향	17
4. 전력 소비 동향	21
5. LNG 및 도시가스 소비 동향	23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 동향	27
II. 국내경제 및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33
1. 국내경제동향 및 전망	33
2. 국제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39
III. 2006년 에너지 수요 전망	44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45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50
3. 석유제품 수요 전망	55
4. 전력 수요 전망	58
5. LNG 및 도시가스 수요 전망	61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65

표 차례

<표 I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9
<표 I -2> 총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	12
<표 I -3>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14
<표 I -4> 최종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기여율	16
<표 I -5>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동향	17
<표 I -6> 주요 석유제품 소비 동향	19
<표 I -7> 전력소비 동향	21
<표 I -8> LNG 소비 동향	24
<표 I -9> 도시가스 소비 동향	25
<표 I -10> 석탄 소비 동향	28
<표 I -11> 열에너지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 추이	32
<표 II-1> 최근의 경제동향	34
<표 II-2> 주요 경제지표 전망	37
<표 II-3> 국내 주요기관의 경제전망	39
<표 II-4> 2005년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40
<표 II-5> IEA 세계 석유 소비 실적 및 전망	42
<표 II-6> 7월 해외 주요기관 유가 전망	43
<표 III-1> 경제전망	44
<표 III-2> 평균기온 및 냉 · 난방도일 (2006년)	44
<표 III-3> 에너지수요증가율 및 주요 지표	46
<표 III-4> 총에너지 수요 전망	47
<표 III-5>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51
<표 III-6>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 전망	56

<표Ⅲ-7> 주요 석유제품 수요 전망	57
<표Ⅲ-8> 전력수요 전망	58
<표Ⅲ-9> LNG 수요 전망	62
<표Ⅲ-10> 도시가스 수요 전망	63
<표Ⅲ-11> 석탄 수요 전망	67
<표Ⅲ-12> 열에너지·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69

■ 그림 차례 ■

[그림 I -1] 총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11
[그림 I -2]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증가율 추이	15
[그림 I -3]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18
[그림 I -4]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1)	20
[그림 I -5]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2)	20
[그림 I -6]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22
[그림 I -7]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23
[그림 I -8] 도시가스 소비증가율 추이	27
[그림 I -9] 용도별 석탄소비 및 점유율 추이	29
[그림 I -10] 동절기 난방도일 및 평균기온 추이	31
[그림 I -11]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32
 [그림 II-1]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41
 [그림 III-1] 냉·난방도일 전망(2006)	44
[그림 III-2] 총에너지수요 전망	45
[그림 III-3] 경제성장률 및 에너지수요 증가율	46
[그림 III-4] 에너지원별 총에너지수요 비중	49
[그림 III-5]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50
[그림 III-6] 부문별 최종에너지수요 비중	52
[그림 III-7]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수요 비중	53
[그림 III-8] 전력 수요 전망	59
[그림 III-9]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60
[그림 III-10]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비중 추이	65
[그림 III-11] 용도별 석탄수요 및 점유율 전망	66

2006년 에너지 수요 전망

요 약

에너지 소비 동향

- 총에너지 소비는 2004년에 전년대비 2.4%의 낮은 증가에 그쳤으며, 2005년 3/4분기까지의 누적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였음.
 - 2005년 총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경기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낮고, 고유가상황이 지속되는 등 소비 위축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4분기까지의 누적 기준 총에너지 소비증가율은 4.0%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임.
 - 경기부진과 고유가 상황 지속 등 소비둔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2005년 상반기에 에너지 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1/4분기의 기후조건(난방도일 14% 증가)으로 인해 난방용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도 소비 부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효과도 영향을 주었음.
 - 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 2차 에너지의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환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석유화학산업의 경기호조로 인하여 원료유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요인임.
 - 에너지원별 소비를 보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소비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석탄, LNG는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됨.
- 2005년 3/4분기까지의 누적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126.8백만 TOE를 기록
 - 분기별 증가율은 1/4분기 3.6%, 2/4분기 3.2%, 3/4분기는 3.7%로 나타남. 1/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2/4분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2005년 1/4분기의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용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 3/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4.5%로 상반기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 산업

2 에너지수요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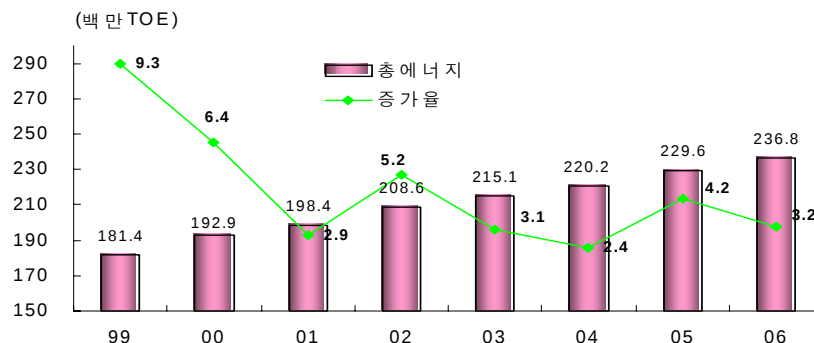
및 상업부문을 중심으로 소비증가세가 확대되어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3.7%를 기록함.

- 부문별로는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소비가 2005년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7.0%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산업용 소비는 경기부진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침. 수송용 소비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하반기의 감소세에서 1.8% 증가세로 반전됨.

총에너지 수요 전망

- 총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전년대비 4.2% 증가한 229.6백만 TOE, 2006년에는 3.2% 증가한 236.8백만 TOE로 전망됨.
- 2005년의 총에너지수요 증가율은 경기부진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등 소비 둔화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3.9% 추정)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05년 1/4분기 및 4/4분기의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용 에너지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기인함
- 2005년의 에너지증가율 상승은 기후조건 외에도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수요 증대, 주 5일제 근무확산에 따른 수송용 연료수요 증가, 2004년의 수요 둔화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도 영향을 받음.

총에너지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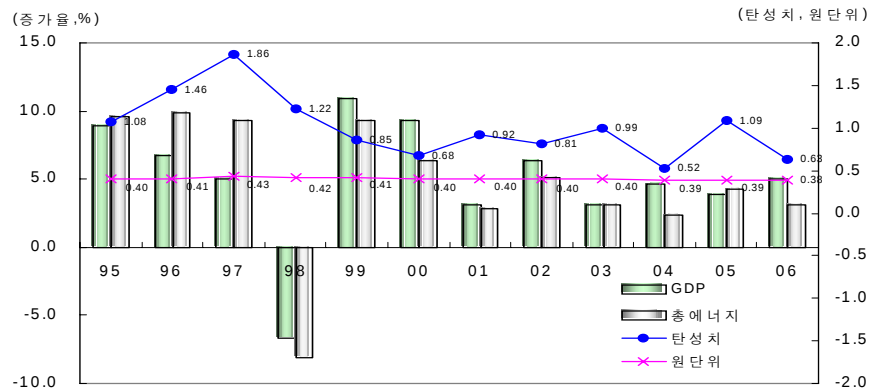


- 2006년 총에너지수요는 경제성장률(5.0%) 상승 전망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가격 인상, 2005년 난방용 수요 급증에 대한 기술적 반락,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동·하절기에 예외적인 기온변동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소비 패턴이 추세를 벗어나 일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함.

에너지수요증가율 및 주요 지표

구분	'00	'01	'02	'03	'04	'05	'06
에너지소비증가율(%)	6.4	2.9	5.2	3.1	2.4	4.2	3.2
경제성장률(%)	9.3	3.1	6.3	3.1	4.6	3.9	5.0
에너지원단위	0.403	0.402	0.398	0.398	0.389	0.391	0.384
GDP 탄성치	0.68	0.92	0.81	0.99	0.52	1.09	0.63

경제성장률 및 에너지수요 증가율



- 2006년도 총에너지수요를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탄 및 LNG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에너지원의 증가율이 2005년보다 둔화될 전망
- 석유수요는 2005년에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0.7%로

4 에너지수요전망

증가율이 2005년 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2005년의 석유수요 증가 전망은 2004년 소비 감소에 대한 기술적 반등, 석유화학산업의 납사에 대한 견실한 수요 증가, 주 5일근무제 확대 등에 기인함. 반면 2006년의 수요둔화 전망은 납사 수요 둔화, 국내 석유제품가격 인상, 전년도의 수요 반등에 대한 상대적 반락 효과 등이 반영됨.

총에너지 수요 전망

분기	2005e					2006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석탄 (천톤)	20,052 (-1.8)	20,015 (2.7)	22,123 (8.2)	22,508 (3.5)	84,698 (3.1)	42,505 (6.1)	45,105 (1.1)	87,610 (3.4)
석유 (백만bbl)	207.4 (3.4)	180.0 (1.9)	177.4 (0.7)	199.4 (0.2)	764.2 (1.6)	388.1 (0.2)	381.5 (1.3)	769.7 (0.7)
LNG (천톤)	8,263 (4.7)	3,905 (-11.2)	3,690 (5.3)	7,004 (16.6)	22,863 (4.8)	13,344 (9.7)	12,032 (12.5)	25,377 (11.0)
수력 (TWh)	0.7 (-8.3)	1.2 (3.8)	2.1 (-27.3)	0.9 (-12.7)	4.9 (-15.9)	2.0 (0.8)	3.2 (6.6)	5.1 (4.3)
원자력 (TWh)	35.5 (18.2)	37.6 (22.1)	36.5 (2.6)	37.9 (10.4)	147.5 (12.8)	74.1 (1.3)	75.8 (1.9)	149.8 (1.6)
기타 (천TOE)	1,140 (25.2)	1,254 (26.4)	1,203 (26.2)	1,411 (25.8)	5,007 (25.9)	2,810 (17.4)	3,011 (15.2)	5,820 (16.2)
총에너지 (백만TOE)	61.6 (4.5)	53.1 (4.2)	53.5 (3.2)	61.4 (4.9)	229.6 (4.2)	118.6 (3.3)	118.3 (3.0)	236.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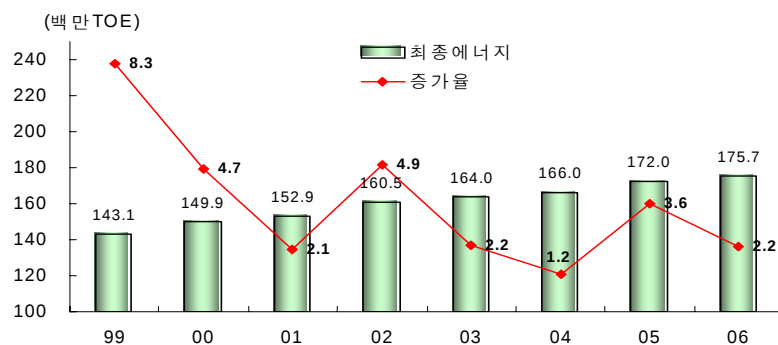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원자력은 2005년에 울진 5,6호기(2,000MW) 가동에 따라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신규 설비증설이 없어 1% 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LNG 수요는 2005년에 발전용 수요 부진에 기인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전년대비 4.8%), 2006년에는 발전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가율이 11% 내외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 석탄 수요는 2005년에 발전용 수요 둔화, 산업용 수요 감소 등으로 3.1%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2006년의 수요증가율은 2005년보다 약간 높은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최종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3.6%, 2006년에는 2.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상반기 최종에너지수요는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4분기의 추운 날씨, 원료유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가시화, 4/4분기의 추운 날씨 등으로 3.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2006년의 최종에너지수요 둔화 전망은 석유화학업의 납사수요 둔화 2005년의 난방용 수요 급증에 대한 상대적 반락, 국내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효과 등에 기인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최종 수요부문별로는 2006년의 산업부문의 에너지수요증가율이 산업활동 증가로 인해 2005년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송 및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수요증가율은 2006년에 전년 대비 둔화될 전망이다.
-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는 경기회복세로 인한 산업활동 증가로 2.9%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6 에너지수요전망

- 2004년에 감소하였던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2.4%,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은 전년도의 소비 감소에 대한 반등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06년에는 수송연료가격 인상 및 2005년 반등에 대한 기술적 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 내외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가정·상업·공공부문은 2005년에 기온효과의 영향으로 8.4%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나, 2006년에는 2005년의 난방용 수요 증대에 대한 상대적 반락효과로 인하여 2% 이하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구 분	2005e					2006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산 업 (백만TOE)	23.9 (2.0)	22.9 (2.1)	23.5 (4.0)	24.5 (0.4)	94.9 (2.1)	48.1 (2.7)	49.6 (3.1)	97.7 (2.9)
수 송 (백만TOE)	8.4 (1.0)	9.1 (3.6)	8.9 (0.8)	9.1 (4.2)	35.5 (2.4)	17.9 (1.8)	17.9 (0.0)	35.8 (0.9)
가·상·공 (백만TOE)	15.1 (7.8)	8.1 (5.9)	6.8 (6.7)	11.6 (12.0)	41.6 (8.4)	23.6 (1.5)	18.7 (1.7)	42.3 (1.6)
합 계 (백만TOE)	47.5 (3.6)	40.2 (3.2)	39.2 (3.7)	45.2 (3.9)	172.0 (3.6)	89.6 (2.2)	86.2 (2.1)	175.7 (2.2)
도시가스 (백만m ³)	6,951 (10.5)	3,426 (8.2)	2,096 (3.9)	4,612 (16.9)	17,084 (10.8)	10,754 (3.6)	6,936 (3.4)	17,690 (3.5)
석유 (백만bbl)	193.9 (1.8)	173.5 (2.2)	173.0 (1.8)	189.2 (0.1)	729.7 (1.5)	368.6 (0.3)	365.6 (0.9)	734.1 (0.6)
전력 (TWh)	84.8 (5.7)	80.1 (6.3)	83.1 (5.9)	84.4 (8.0)	332.4 (6.5)	174.9 (6.1)	177.9 (6.2)	352.8 (6.1)
석탄 (천톤)	8,351 (-1.2)	7,863 (-4.1)	8,817 (6.1)	9,541 (2.8)	34,572 (0.9)	16,445 (1.4)	18,228 (-0.7)	34,673 (0.3)
열/기타 (천TOE)	1,872 (22.2)	1,447 (24.1)	1,282 (25.5)	1,927 (24.2)	6,528 (23.8)	3,748 (12.9)	3,618 (12.8)	7,366 (12.8)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최종에너지 소비를 원별로 보면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증가율이 2005년보다 2006년에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석유제품 소비는 2005년에 가격효과가 감소하고 전년의 소비부진에 대한 상대적 영향으로 1.5%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원료유 및 수송 경유수요는 증가하지만 휘발유, 난방 연료유 수요 감소 등으로 증가율이 0.6%로 둔화될 전망이다.
- 전력수요는 2005년에 상업용 수요 증가(9.1%)에 힘입어 6.5% 증가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6.1%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도시가스는 2005년에 1/4분기 및 4/4분기의 소비 급증으로 10.8% 증가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3%대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석탄 소비는 2005년에 상반기의 소비 감소(-2.6%)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수요가 반등하여 연간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할 전망이나, 2006년에는 증가율이 0.3%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수요전망의 시사점

- 2006년도의 에너지수요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0%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3.2%, 최종에너지는 2.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증가율 둔화 전망은 국내 에너지가격 인상 날씨의 영향에 따른 2005년 수요반등에 대한 기술적 반락효과 등이 반영
-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에너지저소비형으로의 사회·경제구조 전환 등으로 에너지수요증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임.
- 에너지소비는 기후여건의 일시적 변화(예, 2005년도의 이상 저온)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절기 및 하절기 이상 기후에 대비한 에너지수급 관리가 중요함.

- 2006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없기 때문에 타 발전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동절기의 최대부하 상승 및 전력수요량 증대 추세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경우 동절기의 발전용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 상존
 - 2009년까지 원전의 추가증설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LNG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
- 서민용 연료인 연탄의 수요가 2005년에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이는 등유에 대한 상대가격 하락으로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된 데 기인함. 국내 무연탄 수급상황을 고려한 연탄에 대한 수요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

I.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 총에너지 소비는 2004년에 전년대비 2.4%의 낮은 증가에 그쳤으며, 2005년 3/4분기까지의 누적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 168.2백만 TOE를 기록
- 2005년 총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경기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고, 고유가상황이 지속되는 등 소비 위축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4분기까지의 누적 총에너지 소비증가율은 4.0%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임.

<표 I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분기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석탄	79,120	20,430	19,487	20,446	21,753	82,116	20,052	20,015	22,123
(천톤)	(4.2)	(3.9)	(1.3)	(5.1)	(4.7)	(3.8)	(-1.8)	(2.7)	(8.2)
석유	762.9	200.6	176.6	176.2	199.0	752.3	207.4	180.0	177.4
(백만bbl)	(0.0)	(-2.8)	(0.3)	(2.0)	(-4.3)	(-1.4)	(3.4)	(1.9)	(0.7)
LNG	18,610	7,896	4,400	3,504	6,009	21,809	8,263	3,905	3,690
(천톤)	(4.7)	(24.6)	(13.4)	(21.0)	(9.3)	(17.2)	(4.7)	(-11.2)	(5.3)
수력	6.9	0.8	1.2	2.9	1.0	5.9	0.7	1.2	2.1
(TWh)	(29.7)	(-19.4)	(-33.1)	(-2.9)	(-13.8)	(-14.9)	(-8.3)	(3.8)	(-27.3)
원자력	129.7	30.1	30.8	35.5	34.3	130.7	35.5	37.6	36.5
(TWh)	(8.9)	(-7.9)	(8.8)	(3.1)	(0.2)	(0.8)	(18.2)	(22.1)	(2.6)
기타	3,241	911	992	953	1,121	3,977	1,140	1,254	1,203
(천TOE)	(10.8)	(20.8)	(24.0)	(24.4)	(21.8)	(22.7)	(25.2)	(26.4)	(26.2)
1차에너지	215.1	59.0	51.0	51.8	58.5	220.2	61.6	53.1	53.5
(백만TOE)	(3.1)	(2.0)	(3.1)	(4.6)	(0.3)	(2.4)	(4.5)	(4.2)	(3.2)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특히, 상반기에 총에너지증가율이 4.4%를 기록하여 상반기의 GDP 탄성치가 1.47로 매우 높았음.
 -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조립금속업(전자, 반도체, 통신 등), 서비스업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2000년 이후 에너지 소비의 GDP 탄성치가 경기 상승국면에서 낮아지고 하강국면에서는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경기부진과 고유가 상황 지속 등 소비둔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2005년 상반기에 에너지 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1/4분기의 기후조건(난방도일 14% 증가)으로 인해 난방용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도의 소비 부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효과도 영향을 주었음.
 - 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 2차 에너지의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환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석유화학산업의 경기호조로 인하여 원료유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요인임.
- 3/4분기의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3.2%를 기록하여 1/4분기 및 2/4분기에 비해 둔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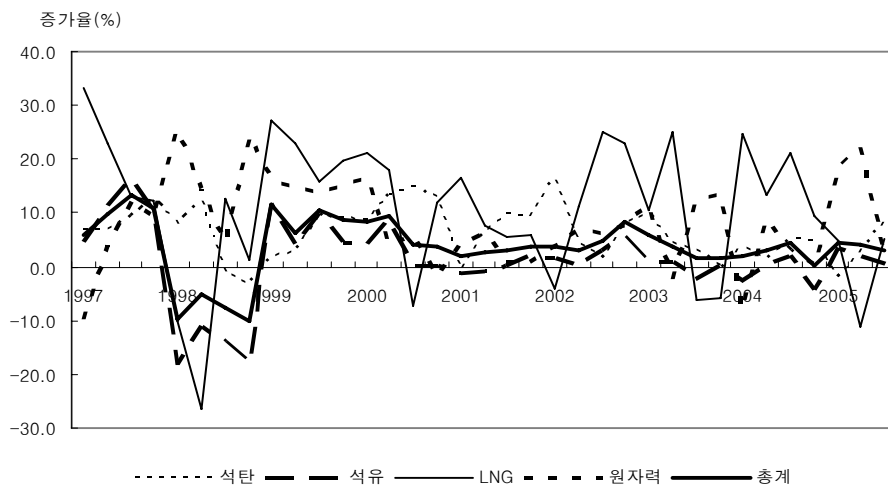
□ 에너지원별 소비를 보면 원자력, 기타에너지의 소비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석탄, LNG는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됨.

- 석유 소비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387.4백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며, 3/4분기에는 0.7%로 증가율이 둔화됨.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석유 소비증가율이 반등한 것은 전년 동기의 소비 감소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와 상반기 중 납사소비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3/4분기에는 전환부문 석유소비가 30.5% 감소한 데 기인하여 0.7%로 증가율이 둔화됨.
- 석탄 소비는 상반기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한 40.1백만 톤을 기록. 산업용 유연탄 및 무연탄 소비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고유가로 가정·상업부문 연탄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발전용 유

연탄 소비 증가로 증가세를 유지함. 3/4분기의 석탄소비는 연탄 소비 급증(74.4%), 산업용 소비증가율 회복(4.8%) 및 발전용 소비의 높은 증가(9.6%) 시현으로 8.2% 증가함.

- LNG 소비는 2004년에 17.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하였음. 이는 도시가스용 LNG 수요가 크게 증가(10.1%)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자력발전(울진5,6호기) 가동으로 발전용 LNG 수요가 14.5%나 감소한데 기인함. 3/4분기에는 발전용 소비가 9.9% 증가한 데 힘입어 5.3%의 견조한 증가율 시현
- 원자력은 울진 5, 6호기 신규 가동에 힘입어 2005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20.1% 증가함. 이러한 높은 증가율은 2004년 상반기 일부 원전의 가동 중지때 따른 소비 감소(-0.1%)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도 반영된 것임. 3/4분기에는 2.6%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기타 에너지는 2004년 22.7%나 증가한데 이어 200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25.8%, 3/4분기에는 26.2%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함.

[그림 I-1] 총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 총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에너지소비 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을 보면 석탄의 기여율이 30%에서 50% 사이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기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원자력과 LNG의 경우는 발전설비의 신규가동 여부에 따라 기여율의 등락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총에너지소비 증가에 크게 기여해왔음.
- 반면 석유의 경우는 석유화학업 경기변동에 따른 원료유 소비 변화 유가변동에 따른 타 연료로의 대체 속도 변화 등에 따라 기여율의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주목할만한 점은 기타에너지의 기여율이 2004년에 14.2%로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임²⁾.

<표 1-2> 총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4~3/4
석탄	41.3	50.7	33.1	31.4	38.9	18.2
석유	26.1	1.9	19.8	-0.5	-33.7	21.1
LNG	18.0	33.7	22.6	17.0	80.4	1.2
수력	-1.0	-6.6	2.8	6.1	-5.0	-3.1
원자력	12.8	14.3	17.0	41.1	5.1	51.1
기타	2.8	5.9	4.6	4.9	14.2	1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05년 3/4분기까지의 에너지 소비 증가 기여율은 원자력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석유가 21.1%로 뒤를 잇고 있음.

1) 총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됨

· 에너지원별 기여율 = (에너지원별 증가분÷총에너지증가분)*100

2) 기타에너지 소비는 경제적인 동인보다는 정책적 동인에 의해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의 높은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소비 증가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요 예측의 오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2005년 3/4분기까지의 에너지소비 증가율 4.0%에 대한 원별 기여도를 보면 원자력이 2.0%p, 석유가 0.8%p, 석탄 0.7%p로 세 에너지가 1/4분기~3/4분기의 에너지 소비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함

2.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 2005년 3/4분기까지의 누적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126.8백만 TOE를 기록
 - 분기별 증가율은 1/4분기 3.6%, 2/4분기 3.2%, 3/4분기는 3.7%로 나타남. 1/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2/4분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2005년 1/4분기의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용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 3/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4.5%로 상반기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 산업 및 상업부문을 중심으로 소비증가세가 확대되어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3.7%를 기록함.
- 부문별로는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소비가 2005년 1/4분기~3/4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7.0%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산업용 소비는 경기부진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침. 수송용 소비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하반기의 감소세에서 1.8% 증가세로 반전됨.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는 생산활동 부진에 따라 2005년 1/4분기와 2/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 2.1% 증가에 그쳤으나 3/4분기에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4.0%로 증가율이 상승함. 3/4분기까지의 산업부문 석유소비는 원료유 소비증가(5.4%)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연료유는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도시가스 및 전력 소비가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1%와 5.0% 증가하여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한 반면 유연탄과 무연탄 소비는 각각 1.2%와 2.0% 감소함.

-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4년 4/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4.0% 감소하였으나 2005년 들어서는 증가세로 반전되어 1/4분기 1.0%, 2/4분기 3.6%, 3/4분기 0.8% 증가하여 3/4분기까지의 누적으로는 1.8% 증가하였음. 고유가 및 유가 상승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가 상반기 중 6.5% 증가하여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함 휘발유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4년 상반기 휘발유 소비가 6.0% 감소한데 따른 상대적인 영향과 주5일제의 확산 및 승용차 대형화 추세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표 I -3>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구 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산 업 (백만TOE)	90.8 (1.8)	23.5 (2.2)	22.5 (2.5)	22.6 (3.2)	24.4 (1.8)	93.0 (2.4)	23.9 (2.0)	22.9 (2.1)	23.5 (4.0)
수 송 (백만TOE)	34.6 (2.6)	8.3 (1.7)	8.8 (0.5)	8.8 (1.9)	8.7 (-4.0)	34.6 (-0.1)	8.4 (1.0)	9.1 (3.6)	8.9 (0.8)
가·상·공 (백만TOE)	38.6 (2.8)	14.0 (0.5)	7.6 (2.8)	6.4 (2.9)	10.3 (-5.7)	38.4 (-0.4)	15.1 (7.8)	8.1 (5.9)	6.8 (6.7)
합 계 (백만TOE)	164.0 (2.2)	45.8 (1.6)	38.9 (2.1)	37.8 (2.9)	43.5 (-1.3)	166.0 (1.2)	47.5 (3.6)	40.2 (3.2)	39.2 (3.7)
도시가스 (백만m ³)	14,734 (6.2)	6,292 (5.9)	3,167 (7.4)	2,017 (6.4)	3,943 (-0.1)	15,420 (4.7)	6,951 (10.5)	3,426 (8.2)	2,096 (3.9)
석유 (백만bbl)	722.7 (0.0)	190.4 (-0.2)	169.9 (0.8)	170.0 (1.7)	189.0 (-3.6)	719.3 (-0.5)	193.9 (1.8)	173.5 (2.2)	173.0 (1.8)
전력 (TWh)	293.6 (5.4)	80.2 (5.6)	75.3 (6.0)	78.5 (9.4)	78.1 (4.3)	312.1 (6.3)	84.8 (5.7)	80.1 (6.3)	83.1 (5.9)
석탄 (천톤)	34,779 (4.6)	8,451 (-3.2)	8,203 (-2.2)	8,309 (-2.1)	9,285 (1.2)	34,248 (-1.5)	8,351 (-1.2)	7,863 (-4.1)	8,817 (6.1)
열 및 기타 (천TOE)	4,511 (8.7)	1,532 (13.6)	1,166 (21.0)	1,022 (21.5)	1,552 (14.3)	5,271 (16.9)	1,872 (22.2)	1,447 (24.1)	1,282 (25.5)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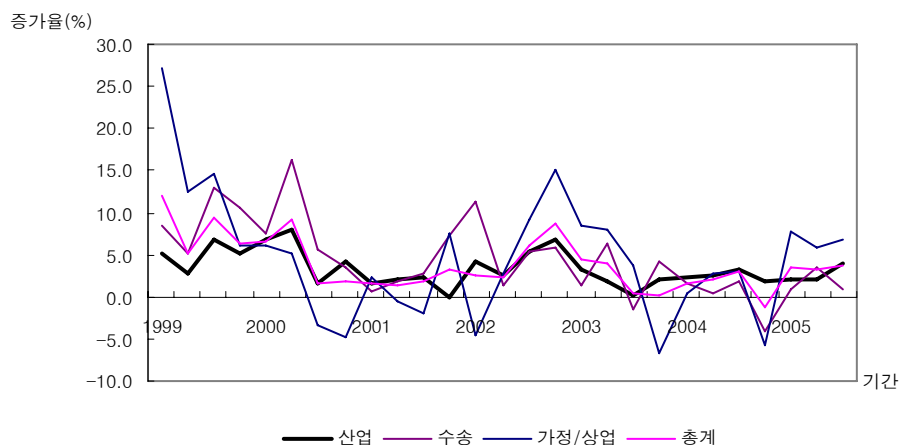
- 가정·상업·공공부문은 난방용 연료소비 증가로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4분기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5.9%, 3/4분기에는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원별 에너지소비를 보면 도시가스 소비가 3/4분기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9.3% 증가하였으며, 전력 소비도 상업용 소비가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7.1% 증가하였음.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4년 4/4분기에 23.2%나 증가한 무연탄 소비는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44.7% 증가하는 등 급신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를 3/4분기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보면 도시가스, 열 및 기타에너지는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인 반면 석탄 소비는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정체됨.

- 전력 소비는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6.0% 증가함. 상업용 소비가 8.3% 증가하여 전력소비 증가를 주도
- 도시가스 소비는 상반기에 9.7% 증가하는 등 3/4분기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8.7%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낮은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동, 올해 1/4분기의 추운 날씨 등에 기인함.
- 석유 소비는 2004년 하반기에 1.2% 감소하였으나 금년 상반기는 2.0% 증가로 반전되었고, 3/4분기까지 전체로는 1.9% 증가함. 그러나 이는 원료유 소비 증가(5.4%)에 의한 것으로 연료유는 감소세를 지속함.

[그림 I-2]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증가율 추이



□ 최종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기여율

- 최종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소비증가 기여율을 보면 전력과 도시가스의 기여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석유와 석탄은 기여율의 등락이 심하게 나타남. 이는 석유와 석탄의 경우 특정 산업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주목할만한 점은 2004년 이후 기타에너지의 기여율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임.
- 부문별 기여율을 보면 산업부문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04년의 경우에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증가 기여율이 108.6%로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는 산업부문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수송부문은 2000년에는 에너지소비 증가분의 33.9%를 기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기여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수송용 유류가격 상승 추세로 인하여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가정·상업·공공부문의 기여율은 기호조건에 따라 등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표 I -4> 최종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기여율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4~3/4
에너지원별 기여율	도시가스	30.2	23.5	17.0	25.5	35.8	24.4
	석유	11.4	-7.7	37.4	-0.1	-31.8	27.6
	전력	32.1	50.5	23.8	36.8	79.0	28.2
	석탄계	19.9	22.1	14.6	27.7	-20.6	-0.8
	유연탄	11.5	1.3	9.1	14.6	-14.5	-4.0
	무연탄	8.3	20.8	5.5	13.0	-6.1	3.2
	열에너지	1.8	1.0	1.0	2.2	2.1	2.4
	기타	4.8	10.5	6.3	8.0	35.6	18.2
부문별 기여율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업	59.3	40.1	53.9	45.3	108.6	42.7
	수송	33.9	31.1	24.7	24.5	-0.9	11.2
	가·상·공	6.8	28.8	21.4	30.1	-7.8	46.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석유제품 소비 동향

- 2005년도는 전년도 석유제품 소비 감소의 반등 효과로 상반기 석유소비
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같은 기간
(1~3분기)대비 2.0% 증가하였음.
- 2005년 하반기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증가
하여 3/4분기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음.
- 부문별로는, 3/4분기 산업부문 연료소비의 감소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전
환부문의 경우 원자력의 신규설비 가동 등의 영향으로 30%가 넘는 감소
를 보임. 수송부문의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산업 원료와 가정·상업·
공공부문의 석유수요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0.7%의 증가를 보임.

<표 I -5>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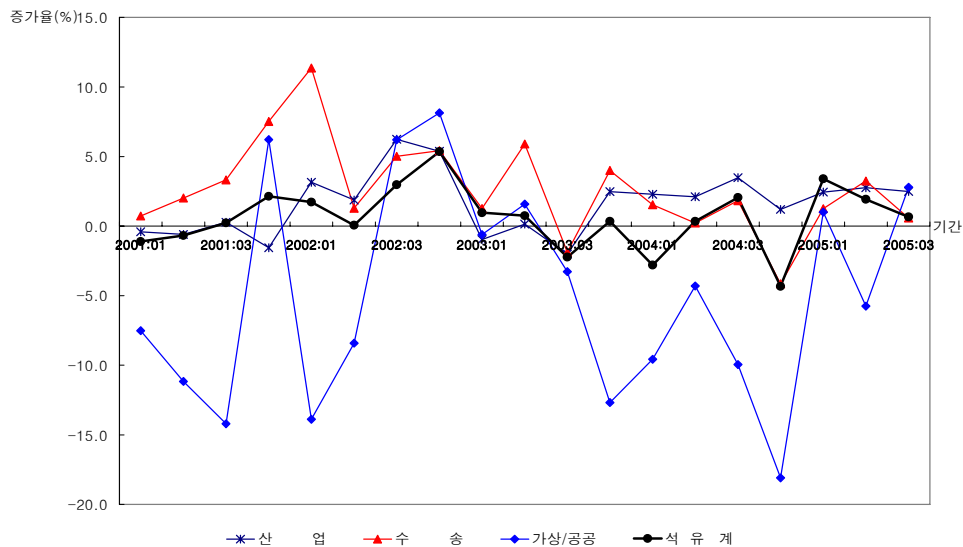
(단위: 백만 bbl)

구 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수 송	249.6 (2.3)	59.8 (1.5)	63.4 (0.2)	63.5 (1.8)	62.4 (-4.1)	249.1 (-0.2)	60.6 (1.3)	65.5 (3.2)	63.8 (0.6)
산 업	374.7 (-0.1)	97.7 (2.3)	90.8 (2.1)	93.6 (3.5)	101.0 (1.2)	383.1 (2.2)	100.1 (2.4)	93.3 (2.8)	95.9 (2.5)
- 연료	97.2 (-9.3)	25.7 (-3.8)	22.1 (-1.2)	20.5 (-2.4)	24.2 (-10.7)	92.5 (-4.8)	24.1 (-6.1)	20.6 (-6.8)	19.2 (-6.3)
- 원료	277.5 (3.6)	72.0 (4.7)	68.6 (3.2)	73.1 (5.3)	76.8 (5.6)	290.6 (4.7)	75.9 (5.5)	72.7 (5.8)	76.7 (5.0)
가정·상업·공공	98.4 (-4.8)	32.9 (-9.6)	15.7 (-4.3)	12.9 (-10.0)	25.6 (-18.1)	87.1 (-11.5)	33.3 (1.0)	14.8 (-5.8)	13.3 (2.8)
전 환	40.3 (-0.7)	10.2 (-34.6)	6.7 (-9.4)	6.2 (12.2)	9.9 (-15.6)	33.0 (-18.0)	13.5 (33.0)	6.4 (-3.8)	4.3 (-30.5)
석 유 계	762.9 (0.0)	200.6 (-2.8)	176.6 (0.3)	176.2 (2.1)	199.0 (-4.3)	752.3 (-1.4)	207.4 (3.4)	180.0 (1.9)	177.4 (0.7)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수송부문의 경우, 석유제품 가격 상승, 수출호조, 상대가격 변화 등으로 유종간 증감이 엇갈려(휘발유와 경유 감소, B-C 및 LPG 증가) 전반적으로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0.6%의 증가를 보임
- 산업부문 연료수요 감소세와 원료수요의 증가세가 2005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여 산업부문 전체로는 상반기 성장률과 비슷한 2.5%를 유지함.
- 가정·상업·공공부문 석유제품 소비는 B-C와 LPG 수요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2.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올진 5, 6호기 가동으로 인한 원자력의 증가와 LNG, 석탄 등의 발전용 수요 확대로 전환부문 석유제품 수요는 -30.5%의 큰 감소를 나타냄.

[그림 1 -3]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 주요 제품별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비에너지와 LPG의 소비가 증가하고 에너지용 석유수요가 감소하였음

- 휘발유 수요는 2004년의 감소에 의한 반등 효과와 주5일제 실시 등으로 2005년 상반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3/4분기 들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2.7%로 감소하였음.

- 수송용 경유 또한 산업생산의 확대가 주로 수출용 산업생산의 증가로 발생하여 내수출하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반도체·IT·자동차를 제외한 생산자제품출하의 감소) 육상화물수송이 영향을 받았고, 고유가와 세금조정으로 인한 상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2.3%로 감소함.
- 수송경유를 제외한 등·경유 수요 -7.3%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14.8%)나 2/4분기(-8.6%)에 비해 감소폭은 다소 줄었음
- 중유 수요는 신규원전 가동 영향으로 발전용 수요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8.2% 하락함. 하지만 수출증가에 따라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수송용 중유수요는 11.5% 증가함

<표 I -6> 주요 석유제품 소비 동향

(단위: 백만 b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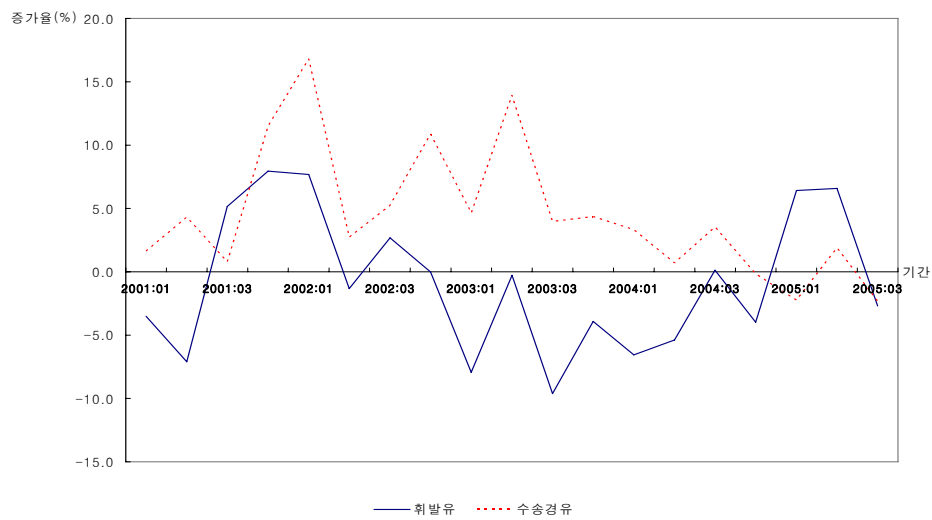
구 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휘 발 유	60.5	13.4	14.1	15.9	14.7	58.1	14.3	15.1	15.5
	(-5.6)	(-6.6)	(-5.4)	(0.1)	(-4.0)	(-3.9)	(6.4)	(6.6)	(-2.7)
수송경유	110.1	26.5	29.7	26.8	29.0	112.0	25.9	30.3	26.2
	(6.7)	(3.3)	(0.7)	(3.5)	(-0.2)	(1.8)	(-2.2)	(1.9)	(-2.3)
등유+경유	88.1	28.2	13.0	11.0	22.6	74.8	26.4	11.9	10.2
(발전용 포함)	(-5.6)	(-17.8)	(-3.8)	(-14.8)	(-17.4)	(-15.1)	(-6.4)	(-8.6)	(-7.3)
중 유	115.8	31.5	23.8	21.8	27.9	105.0	32.9	22.8	20.0
(발전용 포함)	(-4.7)	(-6.8)	(-8.3)	(-6.6)	(-14.8)	(-9.4)	(4.6)	(-4.1)	(-8.2)
납 사	252.4	66.3	61.4	66.7	68.5	262.9	70.6	65.7	69.7
	(2.9)	(3.5)	(2.0)	(5.3)	(5.6)	(4.1)	(6.5)	(7.1)	(4.4)
L P G	88.6	23.3	21.8	20.6	22.6	88.4	24.5	20.8	22.0
(발전용 포함)	(-3.1)	(-3.1)	(5.9)	(4.8)	(-6.6)	(-0.2)	(4.9)	(-4.8)	(6.6)

주) 등유+경유: 경유(수송용 제외),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소비량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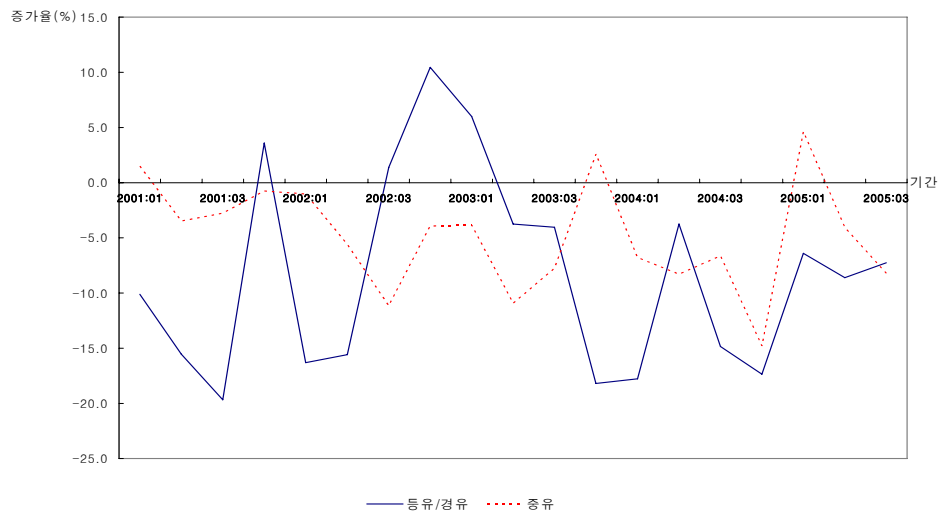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납사는 전반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다소 둔화됨(전반기 6.8% → 3/4분기 4.4%).
- LPG는 수송 부문과 가정·상업·공공 부문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3/4분기에 6.6%의 증가를 기록함

[그림 I -4]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1)



[그림 I -5]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2)



4. 전력 소비 동향

- 2005년 3/4분기까지의 누적 전력소비는 248.0 TWh로 집계되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증가함.
- 200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는 상업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시현함.
 -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하였으며 2/4분기 및 3/4분기에는 각각 6.3%, 5.9% 증가하였음.
 - 부문별로는 상업용이 2005년 1/4분기~3/4분기 동안에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하여 전력소비 증가를 주도하였음. 반면 산업용 및 가정용 소비는 같은 기간 중 각각 5.0%, 4.4% 증가하는데 머물렀음.

<표 I -7> 전력소비 동향

(단위 : T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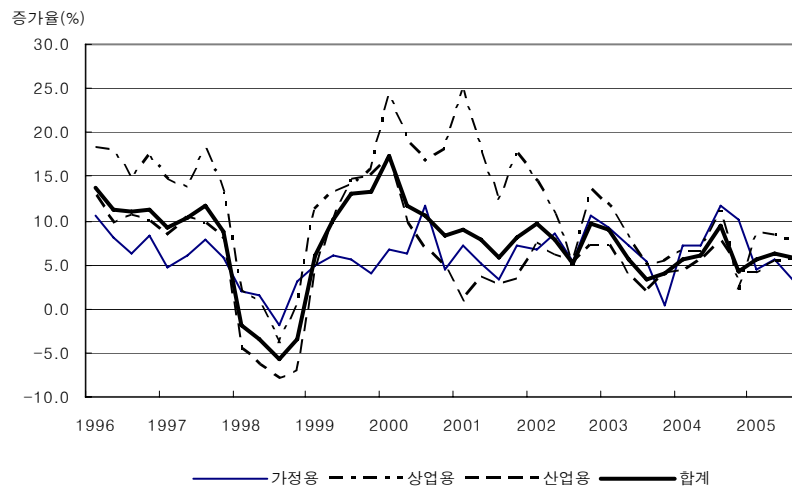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가정용	44.6 (5.4)	12.5 (7.2)	11.5 (7.2)	12.7 (11.8)	11.9 (10.1)	48.6 (9.1)	13.0 (4.5)	12.2 (5.6)	13.1 (3.4)
상업용	98.6 (7.5)	29.1 (6.6)	24.3 (6.6)	26.3 (11.2)	25.5 (2.2)	105.1 (6.6)	31.5 (8.5)	26.3 (8.4)	28.4 (7.7)
산업용	150.4 (4.1)	38.6 (4.3)	39.5 (5.3)	39.5 (7.6)	40.7 (4.0)	158.3 (5.3)	40.2 (4.0)	41.6 (5.3)	41.7 (5.6)
총계	293.6 (5.4)	80.2 (5.6)	75.3 (6.0)	78.5 (9.4)	78.1 (4.3)	312.1 (6.3)	84.8 (5.7)	80.1 (6.3)	83.1 (5.9)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2005년 상반기 상업용 전력 소비는 8.4% 증가하여 전력소비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3/4분기에는 증가율이 7.7%로 다소 둔화됨.
- 가정용 전력소비는 1/4분기 4.5%, 2/4분기 5.6%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는 3.4%로 증가율이 둔화됨. 3/4분기의 낮은 증가율에는 전년 3/4분기의 높은 소비증가(11.8%)에 대한 기술적 반락효과가 반영되어 있음.

- 산업용 전력수요는 상반기에는 경기부진의 영향(상반기 경제성장률 3.1%)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3/4분기에 경제성장률 상승(4.5% 추정)을 반영하여 5.6% 증가하였음. 3/4분기까지의 누적 소비는 5.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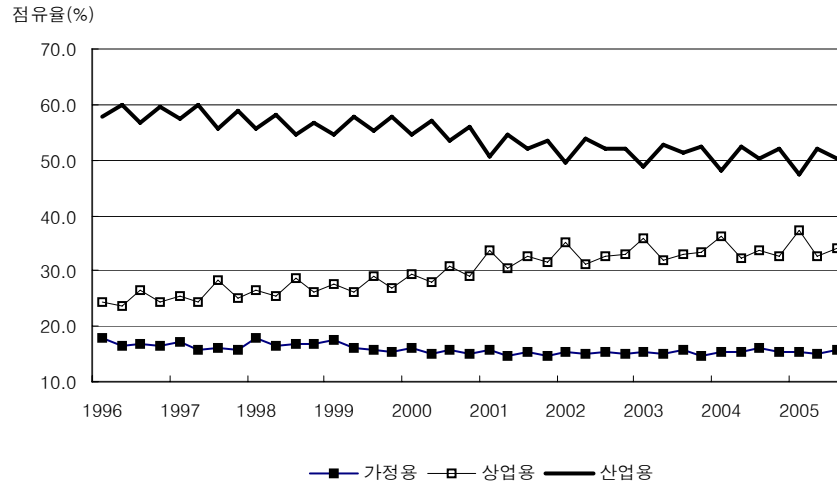
〔그림 1-6〕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은 상업용은 상승하고 산업용의 비중은 하락함

- 전체 전력소비 중 상업용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2.1%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은 33.7%까지 높아졌으며, 2005년에도 상반기 전체로는 35.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가정용 전력소비의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에 소폭 증가하고 1999년에 소폭 감소한 후, 2000년대 들어서는 15% 초반의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4년에 15.6%로 전년보다 약간 상승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에도 15.3% 수준을 유지
- 반면 산업용 전력소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51.2%, 2004년은 50.7%까지 감소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는 경기 부진으로 49.6%를 기록

〔그림 I-7〕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 2005년 9월까지의 최대부하는 54,631MW(8월17일)이었으며 평균부하는 41,044MW로 부하율은 75.1%를 기록함. 이는 2004년 동기의 75.6%보다 0.5% 포인트 낮은 결과임.
- 2005년 월별 평균부하는 1월이 43,652MW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3월의 순으로 나타남.

5. LNG 및 도시가스 소비 동향

- 2005년 1/4분기 LNG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한 8,263천 톤으로 낮은 증가세를 기록함.
- 원전 울진 5호기 및 울진 6호기 신규가동에 따라 LNG 발전용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4분기 LNG 발전용 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한 2,545천 톤을 기록함.
- 2004년 동기와 비교해 추운 기후영향으로 2005년 1/4분기 도시가스용 소비는 5,623천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2.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05년 2/4분기 LNG 소비는 3,905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의 큰 감소세를 기록함.
- 원전 올진 5·6호기의 본격가동에 따라 발전용 LNG의 수요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2005년 2/4분기 발전용 LNG수요는 1,616천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4.4%로 큰 감소율을 기록함.
 - 2005년 2/4분기 도시가스용 LNG소비는 2,268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율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냄.
- 2005년 3/4분기 LNG 소비는 3,690천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5.3%의 증가율을 기록함.
- 2005년 3/4분기 발전용 LNG 소비는 여름철 전력의 수요급증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한 2,021천 톤을 기록함.
 - 2005년 3/4분기 도시가스용 LNG 소비는 1,63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율을 보이며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냄.

<표 I -8> LNG 소비 동향

(단위: 천톤)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도시가스용	11,978 (7.0)	4,999 (5.3)	2,169 (8.0)	1,577 (5.9)	3,759 (0.7)	12,504 (4.4)	5,623 (12.5)	2,268 (4.6)	1,637 (3.8)
발 전 용	6,468 (-0.6)	2,729 (81.5)	2,137 (15.7)	1,839 (31.7)	2,113 (22.7)	8,818 (36.3)	2,545 (-6.8)	1,616 (-24.4)	2,021 (9.9)
L N G 계	18,610 (4.7)	7,896 (24.6)	4,400 (13.4)	3,504 (21.0)	6,009 (9.3)	21,809 (17.2)	8,263 (4.7)	3,905 (-11.2)	3,690 (5.3)

-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2. LNG계는 자체소비가 포함된 1차 에너지 총량을 의미함.
 3. 발전용 LNG에는 지역난방 및 자가발전 LNG 투입량도 포함되어 있음.

- 2005년 1/4분기 도시가스 소비는 6,951백만 m^3 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율을 기록함.
- 2005년 1/4분기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추운 기후의 영향으로 난방용 소비가 급증한데 기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8.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05년 1/4분기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기후적 영향과 더불어 상업용 도시가스 수용가수가 20% 후반대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보임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22.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이는 수용가수 증가 외에도 기존 연료로 사용된 석유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도 상업용 소비증가에 한 요인임.
 - 2005년 1/4분기 산업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고유가 및 환경규제 영향으로 연료대체가 이루어지면서 1/4분기 수요가수 증가율이 10% 후반대를 나타냄에 따라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한 1,325백만 m^3 을 기록함.

< 표 1-9 > 도시가스 소비 동향

(단위: 백만 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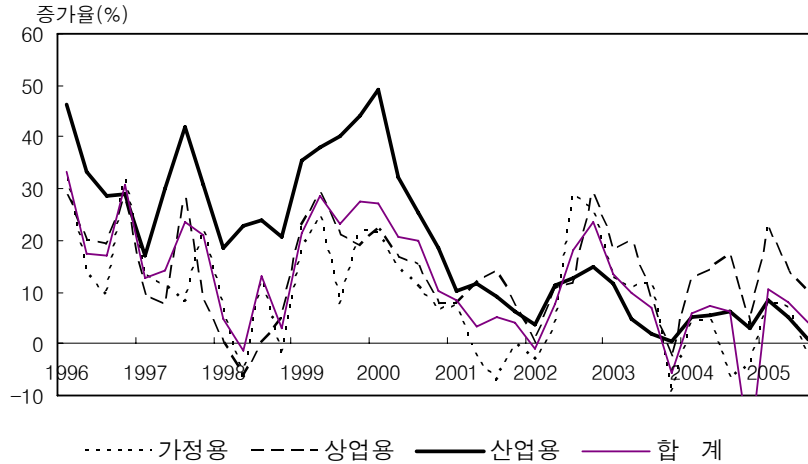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가 정 용	8,126 (5.3)	3,945 (4.0)	1,629 (4.8)	541 (-6.7)	2,103 (-4.3)	8,218 (1.1)	4,266 (8.1)	1,741 (6.9)	526 (-2.9)
상 업 용	2,437 (10.4)	1,034 (12.8)	501 (14.1)	529 (17.6)	654 (3.7)	2,718 (11.5)	1,265 (22.3)	571 (14.0)	581 (9.9)
산 업 용	3,978 (4.8)	1,223 (4.9)	964 (5.6)	873 (6.4)	1,113 (3.1)	4,174 (4.9)	1,325 (8.3)	1,013 (5.0)	881 (0.9)
도시가스계	14,734 (6.2)	6,292 (5.9)	3,167 (7.4)	2,017 (6.4)	3,943 (-0.1)	15,420 (4.7)	6,951 (10.5)	3,426 (8.2)	2,096 (3.9)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2. 도시가스계에는 열병합발전 및 수송용에 사용된 물량이 포함되어 있음.

- 2005년 2/4분기 도시가스 소비는 3,426백만 m^3 로 전년동기대비 8.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 2005년 2/4분기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는 수용가수가 5% 이상 증가하고 소득수준도 완만하게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6.9%의 견조한 증가율을 보임.
 - 2005년 2/4분기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571백만 m^3 으로 전년동기대비 14.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수용가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을 반영함.
 - 2005년 2/4분기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산업활동 회복세에 따라 1,013백만 m^3 으로 전년동기대비 5.0%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감.
- 2005년 3/4분기 도시가스 소비는 2,096백만 m^3 으로 전년 동기대비 3.9%의 비교적 저조한 증가율을 나타냄.
 - 2005년 3/4분기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를 살펴보면 526백만 m^3 으로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함. 이는 2004년에 비해 다소 저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온수 및 난방목적의 이용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3/4분기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581백만 m^3 으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율을 보이며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2005년 3/4분기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881백만 m^3 로 전년 동기대비 0.9%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수용가수가 2005년들어 10% 후반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산업체들의 생산활동이 둔화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1-8〕 도시가스 소비증가율 추이



□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11,235천개에 이릅니다

- 가정용의 경우 증가세가 많이 안정화 되어 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업용은 여전히 2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신규 상업용 건물건설 및 연료대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용의 경우 2004년까지 10% 이내의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05년에 접어들면서 환경규제등의 영향으로 10% 후반대의 높은 수요가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 동향

□ 2005년 3/4분기까지의 석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유연탄 소비는 3.1%, 무연탄 소비는 2.4% 증가하였음.

-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석탄 소비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임.

<표 1-10> 석탄 소비 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무연탄계	8,581 (11.6)	2,145 (-7.2)	1,735 (-11.1)	1,907 (6.1)	2,351 (-6.7)	8,137 (-5.2)	2,109 (-1.7)	1,587 (-8.5)	2,232 (17.0)
가정·상업	1,191 (1.3)	340 (-9.8)	117 (6.4)	(160) (14.3)	768 (36.2)	1,385 (16.3)	539 (58.5)	178 (52.1)	279 (74.4)
산업	4,680 (18.4)	1,122 (-12.7)	941 (-10.7)	1,152 (8.2)	1,182 (-7.4)	4,396 (-6.1)	1,053 (-6.2)	761 (-19.1)	1,351 (17.3)
발전	2,710 (5.9)	683 (5.2)	677 (-14.1)	595 (0.3)	401 (-41.0)	2,356 (-13.1)	517 (-24.3)	648 (-4.3)	602 (1.2)
유연탄계	70,539 (3.3)	18,284 (5.4)	17,753 (2.7)	18,540 (5.0)	19,402 (6.3)	73,978 (4.9)	17,942 (-1.9)	18,428 (3.8)	19,891 (7.3)
제철	20,509 (2.0)	5,168 (2.5)	5,162 (1.6)	5,198 (0.0)	5,311 (2.4)	20,839 (1.6)	5,092 (-1.5)	4,975 (-3.6)	5,548 (6.7)
시멘트	6,060 (6.9)	1,184 (-15.5)	1,457 (-9.4)	1,253 (-18.2)	1,415 (-6.9)	5,309 (-12.4)	1,033 (-12.8)	1,398 (-4.0)	1,117 (-10.9)
기타산업	2,339 (-0.7)	636 (1.8)	527 (-1.0)	547 (-1.9)	609 (-2.6)	2,318 (-0.9)	633 (-0.5)	551 (4.6)	522 (-4.4)
발전	41,631 (3.7)	11,296 (9.9)	10,607 (5.4)	11,542 (11.4)	12,067 (10.5)	45,512 (9.3)	11,184 (-1.0)	11,504 (8.5)	12,704 (10.1)
석탄계	79,120 (4.2)	20,430 (3.9)	19,487 (1.3)	20,446 (5.1)	21,753 (4.7)	82,116 (3.8)	20,052 (-1.9)	20,015 (2.7)	22,123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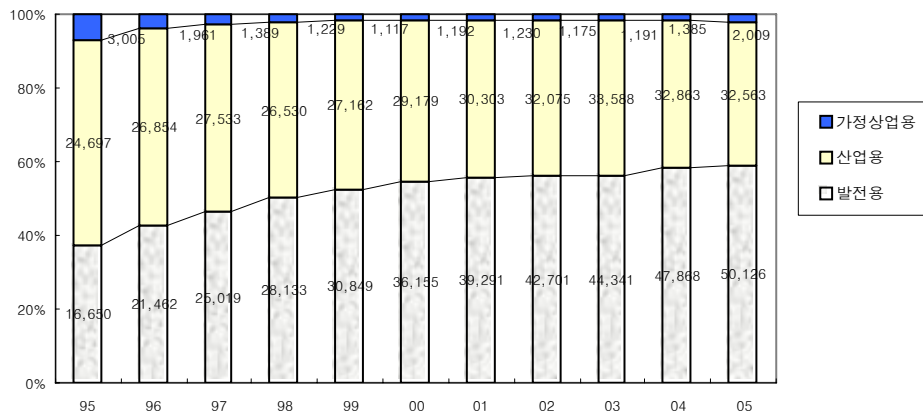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2005년 1/4분기 석탄소비는 가정·상업용 무연탄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하였음. 1/4분기에 유연탄은 1.9%, 무연탄은 1.7% 감소하였음.
- 2005년 2/4분기의 석탄소비는 발전용 유연탄과 가정·상업용 무연탄의 높은 소비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7%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3/4분기에는 발전용 유연탄 및 가정·상업용 무연탄 외에도, 제철용 원료탄과 산업용 무연탄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8.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석탄소비를 용도별로 보면, 2004년 기준 전체 석탄소비의 59.2%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용 소비가 2005년 3/4분기까지 5.0% 증가한 반면, 최종 수요부문의 소비는 0.3% 증가하는데 머물렀음.
- 발전용의 소비비중은 전력수요 증가 및 유연탄 발전설비 증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업용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임.

〔그림 1-9〕 용도별 석탄소비 및 점유율 추이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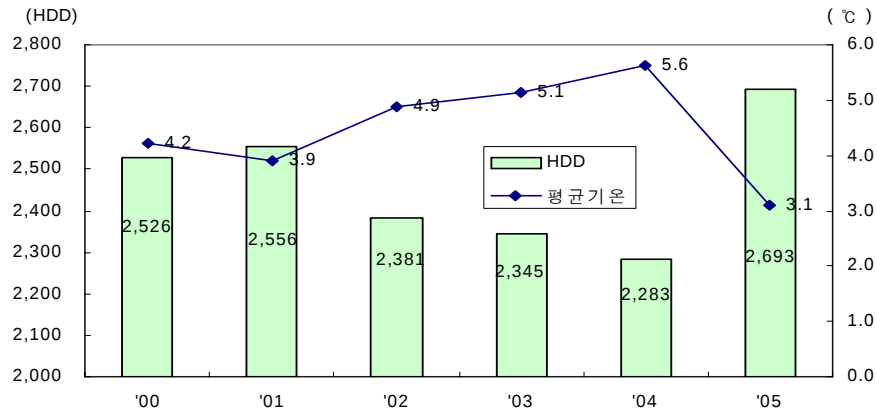
- 2005년 3/4분기까지의 무연탄 소비는 산업용 및 발전용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상업용 소비 급증(전년 동기비 61.4%)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였음.
- 발전용 무연탄 소비는 2004년 4/4분기의 감소(-41.0%)에 이어 2005년 3/4분기까지의 누계로도 9.6% 감소하였음. 특히 1/4분기에는 24.3%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원전 울진 5, 6호기의 신규 가동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는 2005년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61.4%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경기둔화 지속 및 등유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민용 연료로서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부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산업용 무연탄 소비는 2004년에 6.1% 감소한데 이어 2005년 3/4분기까지의 누계로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3/4분기까지의 유연탄소비는 제철용 및 시멘트 제조용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소비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하였음.
 - 발전용 유연탄 소비는 2004년 하반기 설비증설(영흥석탄 1·2호기, 1,600MW)의 영향으로 2005년 3/4분기까지의 누계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하였음. 1/4분기에는 소비가 1.0% 감소하였으나, 2/4분기 및 3/4분기에 각각 8.5%, 10.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제철용 유연탄 소비는 2005년 3/4분기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0.6% 증가하는데 머물렀음. 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2고로가 개보수로 인하여 1/4분기~2/4분기에 걸쳐 총 66일간 가동이 중지된데 기인함.³⁾ 또한 포스코가 세계 철강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급강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전략도 제철용 원료탄 소비 부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소비는 3/4분기까지 8.9% 감소하였음. 이는 시멘트제품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기인하며 폐기물에너지(폐타이어, 합성수지 등)로의 연료대체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주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연료로 이용되는 기타산업용 유연탄은 2005년 3/4분기까지 0.2% 감소하였음.
- 열에너지소비는 2005년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하였음. 이는 2005년 1/4분기의 소비가 추운 날씨에 기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한데 따른 것임.

3) 광양제철소 2고로는 2005년 3월14일부터 66일간 개수작업을 마치고 5월20일부터 조업에 들어감. 2고로는 개수작업을 통하여 설비능력이 15% 확대되었으며, 연간 생산량이 종전보다 45만 톤 늘어난 35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열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상업용 소비는 2005년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공공·기타용은 19.5%나 증가하였음.

[그림 I-10] 동절기 난방도일 및 평균기온 추이



주: 동절기는 1/4분기 및 4/4분기를 의미

- 2005년 3/4분기까지의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5.9% 증가하였음.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가 총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5%에서 2004년에는 1.8%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신재생/기타에너지 소비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증가, 발전차액제도와 공공부문 의무화제도 등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량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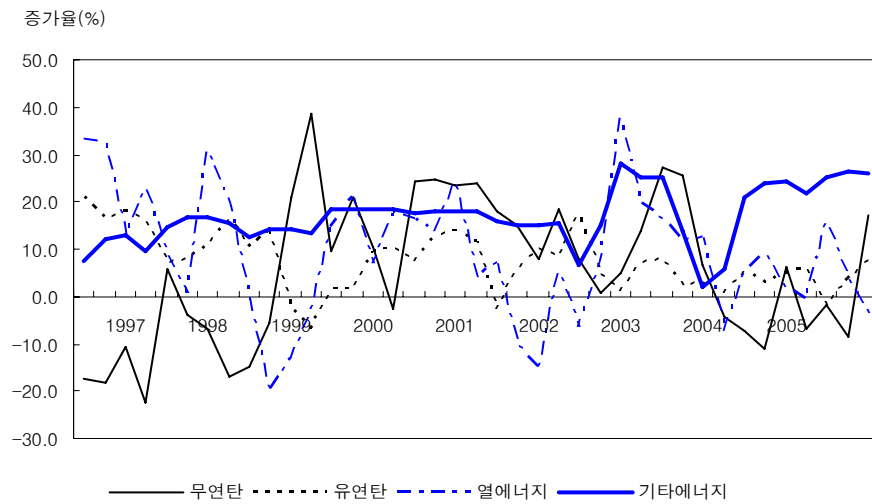
<표 I -11> 열에너지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천TOE)

구 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열에너지	1,300 (6.3)	632 (4.8)	186 (9.0)	83 (1.4)	442 (-0.7)	1,343 (3.3)	731 (15.8)	193 (3.6)	80 (-4.1)
신재생/기타	3,241 (10.8)	911 (20.8)	992 (24.0)	953 (24.4)	1,121 (21.8)	3,977 (22.7)	1,140 (25.2)	1,254 (26.4)	1,203 (26.2)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그림 I -11]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II. 국내경제 및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1. 국내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의 경제동향

□ 개요

- 통계청의 2005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산업활동은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세 지속으로 생산, 소비, 투자 전 부문에서 증가하였음.
- 생산은 섬유, 사무회계용 기계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2.2% 증가함. 반도체, 영상음향통신을 제외하면 3.8% 증가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로 전월보다 0.6p 증가.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4.1%로 전월에 비해 0.6%p 증가

□ 생산

- 11월 산업생산지수는 150.4(2000=100)로 섬유, 사무회계용 기계 등에서는 감소한 반면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2.2% 증가, 전월에 비해서는 5.0% 증가함. 제조업 ICT지수는 31.5% 증가
- 11월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45.4(2000=100)로 전년 동월대비 9.7% 증가함. 내수출하는 6.7% 증가, 수출출하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하여 14.0% 증가
- 11월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24.0(2000=100)으로 석유정제, 섬유제품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제1차 금속, 반도체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4.5% 증가

<표 II-1> 최근의 경제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11월	4/4	연간	2/4	3/4	9월	10월p	11월p
생산	생 산		9.9	6.7	10.4	4.0	6.9	7.3	8.2	12.2
	· 제 조 업		10.2	7.0	10.7	3.9	7.0	7.3	8.4	12.6
	(중 화 학)		12.7	9.4	14.0	5.6	9.1	9.2	10.9	15.7
	(경 공 업)		0.9	-2.2	-0.8	-2.9	-1.1	-0.3	-1.8	-1.2
	출 하		9.2	5.8	9.1	3.5	6.1	5.5	6.0	9.7
	· 내 수		3.0	0.3	2.9	1.4	4.6	2.9	2.7	6.7
	· 수 출		19.4	15.0	20.0	6.8	8.0	9.2	10.7	14.0
	재 고		8.5	9.4	9.4	7.9	6.8	6.8	6.6	4.5
	평균가동률		81.8	80.4	80.3	79.0	79.4	79.0	79.3	83.3
생 산 능 력		4.6	4.8	4.8	2.3	2.7	3.0	3.8	4.3	
소비	도 · 소매판매		-0.8	0.2	-0.3	3.2	3.8	1.1	3.7	5.9
	내수용소비재출하		-0.3	-4.0	-2.4	1.2	6.3	5.9	5.8	9.1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0	0.1	1.4	1.4	0.5	-1.9	1.7	6.9
		국내기계수주	1.6	-5.4	6.8	-12.2	13.6	-0.3	0.9	11.8
	건설	국내건설기성	5.8	4.4	11.0	10.3	4.4	3.3	3.6	11.0
		국내건설수주	4.3	28.8	-5.3	40.5	16.7	28.5	-34.8	3.6
물가	소비자물가		3.3	3.4	3.6	3.0	2.4	2.7	2.5	2.4
	생산자물가		6.8	6.5	6.1	2.2	1.7	1.6	1.6	1.1
경기	동행지수(전월비, %)							0.1	0.4	1.1
	· 순 환 변 동 치							95.9	95.9	96.5
	· 순환변동치전월차(p)							-0.5	0.0	0.6
	선행지수(전월비, %)		-	-	-	-	-	0.4	0.5	0.8
	· 전년동월비(%)							3.0	3.5	4.1
	· 전 월 차(%p)							0.4	0.5	0.6

주) 재고는 월(기)말기준, p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2005년 11월), 2005. 12

통계청, 2005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5. 12

한국은행, 2005년 11월 생산자물가 동향, 2005. 12

- 11월 가동률지수는 109.2(2000=100)로 섬유제품, 음식료품 등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반도체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9% 증가. 전월에 비해서는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증가하여 5.0% 증가
-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4.0%p 증가한 83.3%를 나타냄. 생산능력지수는 121.5로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

□ 투자

- 11월 설비투자는 99.4(2000=100)로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6.9% 증가
- 기계류 내수출하는 조립금속 및 자동차 등의 출하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7% 증가
- 11월 국내 기계수주(경상금액)는 공공발주는 감소하였으나, 민간발주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1.8% 증가. 공공부문은 전력업 및 정부 등에서 각각 터빈 및 데스크탑 PC 등의 발주가 감소함. 민간부문은 영상음향통신, 기타 비제조(전기·가스 및 증기업) 및 운수창고통신 등에서 통신기계, 증기발생 보일러 및 소형버스 등의 발주가 각각 증가
- 11월 국내 건설기성(경상금액)은 공공부문은 감소한 반면, 민간발주 공사실적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1.0% 증가함. 공종별로 보면, 건축공사는 주거용 건축에 힘입어 11.8% 증가하였으며, 토목공사는 일반토목, 플랜트 등이 증가하여 9.3% 증가
- 11월 국내 건설수주(경상금액)는 공공 및 민간부문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함. 공공부문은 주택, 상하수도 및 발전·송전 등이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사무실, 공장·창고 및 학교·병원 등이 증가

□ 소비

- 11월 소비재판매액지수(불변)는 124.8(2000=100)로 신차효과 및 내년초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환원 등으로 승용차판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내구재판매가 증가하였고,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의 판매도 호조를 보임.

- 내구재는 승용차와 컴퓨터 등의 판매호조로 9.8% 증가하였고 준내구재는 의복, 운동·오락용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6.5% 증가함. 비내구재는 의약품, 연료, 서적·문구 등에서 소비가 늘어 3.4% 증가
- 11월 백화점의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2.9% 증가함. 운동·오락용품, 화장품 등에서 판매호조를 보임. 점포수는 전년에 비해 4개(81개→77개) 감소
- 대형할인점의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8.3% 증가함. 점포수는 전년에 비해 21개(268개→289개) 증가

□ 경기종합지수

- 11월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등 전 부문에서 증가하여 전월보다 1.1% 증가.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로 전월보다 0.6p 증가
- 11월 선행종합지수는 종합주가지수, 자본재수입액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8% 증가함. 향후의 경기전환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4.1%로 전월에 비해 0.6%p 증가

나. 국내경제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2005. 12)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05년에 3%대 후반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내수회복과 수출호조로 5%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 2006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5%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06년 상반기에는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면서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이와 같은 상·하반기 성장률 격차는 상당부분 전년 동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반락에 기인하는 것이며, 계절조정 전기 대비로는 상·하반기 모두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을 예상됨.

<표 II-2>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전년 동기대비, %)

	2005년				2006년		
	상반p	3/4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3.0	4.5	4.9	3.9	5.4	4.7	5.0
총소비	2.4	4.1	4.3	3.3	4.4	4.0	4.2
- 민간소비	2.1	4.0	4.4	3.1	4.5	4.0	4.2
총고정투자	1.2	2.0	2.6	1.8	2.8	4.0	3.4
- 설비투자	3.0	4.2	5.9	4.1	6.2	7.5	6.9
- 건설투자	-0.2	0.4	0.5	0.2	0.4	1.7	1.1
경상수지(억달러)	87	25	56	168	57	67	124
총수출(물량)	6.4	11.5	11.0	8.9	13.2	11.9	12.5
총수입(물량)	5.4	10.7	7.9	7.3	12.3	12.1	12.2
소비자물가상승률	3.1	2.3	2.5	2.7	2.6	3.3	3.0
실업률	4.0	3.6	3.5	3.8	3.8	3.3	3.6

주) p는 잠정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05. 4/4), 2005. 12

□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하여 2005년에 3%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4%대 초반으로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 2006년에는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회복세가 지속되어 4%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의 높은 증가세에 대한 기술적 반락으로 인해 4%대 초반으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

□ 투자

- 설비투자는 2005년에 4%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민간 소비와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도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어 7%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6

년 상반기 6%대 초반에서 하반기 7%대 중반으로 높아지는 등 증가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는 2005년에 1%를 크게 하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BTL 및 기업도시 등의 영향으로 2005년보다 증가율이 다소 높아져 1%대 초반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물가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각각 2005년의 2.7%와 2.3%에서 2006년에는 3.0%와 2.7%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05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환율하락이 부분적으로 상쇄하였으나, 2006년에는 환율효과가 소멸되는 한편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증가에 기인하여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

□ 경상수지

- 경상수지는 2006년에 120~1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2005년(170억 달러 내외)에 비해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는 2006년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2005년(350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32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달러금액)은 2006년에 수출물량 증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상승세 둔화에 기인하여 2005년과 비슷한 12%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수입(달러금액)도 2006년에 수입물량 증가율이 높아진 반면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2005년과 비슷한 15%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주요기관의 국내 경제전망

- 국내 주요 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결과를 보면 2005년도 경제성장률은 3.9%로 전망되며, 2006년은 4.8%~5.0% 수준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에 2.8% 내외, 2006년에는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2005년보다 약간 상승한 3.0%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2005년 3.8%, 2006년에는 약간 하락한 3.6%로 전망됨.
- 경상수지는 2005년에 17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120억~160억 달러 내외로 흑자 폭이 줄어들 전망임.

<표 II-3> 국내 주요기관의 경제전망

(단위: %)

구 분	KDI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성장률	3.9	5.0	3.9	5.0	3.9	4.9	3.8	4.8
소비자물가상승률	2.7	3.0	2.7	3.0	2.8	3.1	3.1	3.6
실업률	3.8	3.6	3.8	3.6	3.7	3.6	3.7	3.6
경상수지(억불)	168	124	175	160	162	136	169	9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05. 4/4), 2005. 12.

한국은행, 2006년 경제전망, 2005. 12.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정보 제281호, 2006년 거시경제 전망, 2005. 12.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경제 및 업종별 전망, 2005. 12.

2. 국제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 유가 동향

□ 국제 석유수요의 둔화와 허리케인의 추가피해 완화, 그리고 미국의 생산 차질의 점진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미국 동북부 지역의 한파, OPEC의 감산 예고, 2006년 수요전망의 상향조정, 중동의 정세불안 등으로 다시 상승함.

- 2005년 12월 들어, 미국 및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지속되면서 동절기 난방유 수요가 급증해 유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

- OPEC은 올 1월말 개최예정인 임시총회에서 2/4분기 계절적 비수기에 대비한 감산 문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표 II-4> 2005년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단위: \$/Bbl)

구 분	WTI		Brent		Dubai	
2005년 1월	46.84	(36.8)	44.44	(41.8)	37.97	(31.6)
2005년 2월	47.96	(38.1)	45.37	(46.9)	39.91	(39.4)
2005년 3월	54.27	(47.8)	52.96	(56.6)	45.85	(49.0)
2005년 4월	52.94	(44.2)	50.9	(52.4)	47.21	(49.7)
2005년 5월	49.91	(23.9)	48.33	(27.7)	45.41	(31.0)
2005년 6월	56.38	(48.3)	54.29	(54.7)	51.06	(52.2)
2005년 7월	58.68	(43.8)	57.66	(49.7)	52.84	(52.1)
2005년 8월	64.96	(44.6)	64.39	(49.5)	56.77	(47.7)
2005년 9월	65.60	(42.9)	62.82	(44.7)	56.75	(59.4)
2005년 10월	62.30	(17.0)	58.53	(17.5)	53.95	(42.0)
2005년 11월	58.28	(20.3)	55.14	(28.2)	51.47	(46.8)
2005년 12월	59.42	(37.5)	56.81	(43.1)	53.27	(55.5)

주) ()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고유가, 허리케인 등으로 인해 IEA, OPEC 등 주요기관들이 2005년 세계석유수요를 하향 조정했으나, 2006년도는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또한, 이란의 핵문제로 인한 시장 불안감 고조와 나이지리아 정정불안에 의한 공급차질, 그리고 알카에다의 테러위협 등으로 2006년 1월 들어 유가가 더욱 상승함.

〔그림 II-1〕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나. 세계 석유 수급 전망

- IEA는 12월 발표된 “석유시장보고서”를 통하여, 2005년도 세계 석유수요 성장을 2천 b/d 하향조정하여 8,339만 b/d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06년에는 2005년 하반기 석유수요를 억제하던 단기요인들이 제거됨에 따라 8,518만 b/d이 될 것으로 전망.
- OPEC은 12월 석유시장보고서에서 2005년 세계석유수요를 8,332만 b/d로 전월보다 4만 b/d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6년 세계석유수요 역시 전월전망치에서 11만 b/d 상향조정한 8,491만 b/d가 될 것으로 예측.
- 미국 EIA는 미국의 수요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세계 석유수요가 8,530만 b/d가 될 것이나, 석유공급은 비OPEC의 공급증가가 미비하여 2005년의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표 II-5> IEA 세계 석유 소비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 b/d)

구 분	2004년	2005년 (전망)					2006년 (전망)				
		1/4	2/4	3/4	4/4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OECD	49.5	50.6	48.7	49.3	50.4	49.7	50.8	49.0	50.0	51.4	50.3
북미	25.3	25.5	25.3	25.5	25.7	25.5	25.8	25.6	26.0	26.3	25.9
유럽	15.6	15.5	15.3	15.7	15.9	15.6	15.6	15.3	15.7	16.0	15.6
아태	8.5	9.5	8.1	8.1	8.7	8.6	9.5	8.1	8.2	9.1	8.7
비OECD	32.7	33.5	33.2	33.5	34.4	33.7	34.6	34.5	34.7	35.7	34.9
중국	6.4	6.5	6.4	6.6	6.9	6.6	6.9	6.9	7.0	7.3	7.0
아시아*	8.5	8.8	8.8	8.6	8.8	8.8	9.0	9.0	8.8	9.1	9.0
전세계	82.2	84.1	81.9	82.8	84.8	83.4	85.4	83.5	84.7	87.1	85.2

주) 아시아*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개도국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12월호

다. 국제 유가 전망

- 2006년 들어 미국 등 세계경제 호조가 가시화되면서 석유수요증대 가능성이 있고 나이지리아 및 이란 등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의 해외주요기관들이 국제유가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음.
- 2006년 국제유가 전망치를 가장 높게 제시하였던 미국 EIA는 멕시코만 생산시설 회복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다소 하향조정하였으나,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는 대체로 상향조정되는 양상임.

<표 II-6> 7월 해외 주요기관 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기준	2005		2006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CGES	Brent(D)	57.10	54.40	55.60	50.00	48.90	55.00	52.40
CERA	Dubai	52.75	49.26	56.67	53.00	51.25	48.25	52.29
	Brent(D)	56.75	54.42	60.67	57.00	55.25	51.75	56.17
	WTI	60.30	56.61	62.67	59.00	57.00	53.50	58.04
EIA	WTI	60.19	56.54	64.42	63.75	64.75	65.08	64.50
PIRA	Brent	60.00	55.15	56.05	49.25	51.10	48.90	51.30
	WTI	62.00	56.95	57.60	50.65	52.45	50.60	52.85

Ⅲ. 2006년 에너지 수요 전망

□ 에너지수요전망을 위한 입력 전제인 거시 경제 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2005. 12)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음.

- 정부 및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2005년 경제성장률은 3.9%에 머물렀으나 2005년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어 2006년 성장률이 5%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III-1> 경제전망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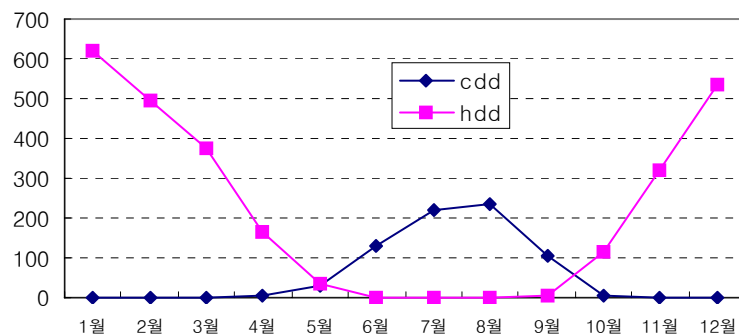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성장률	9.3	3.0	6.3	3.1	4.6	3.9	5.0
소비자물가	2.3	4.1	2.7	3.6	3.6	2.7	3.0

□ 기온변수는 지난 20년간 평균 월별 기온 정보를 이용하였음.

<표 III-2> 평균기온 및 냉·난방도일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2.0	0.5	5.8	12.7	17.8	22.2	25.0	25.5	21.3	14.5	7.4	1.0
HDD	620.6	493.5	376.4	162.8	37.2	1.6	0.0	0.0	4.7	113.2	318.2	534.1
CDD	0.0	0.0	0.0	3.6	30.6	129.4	217.9	234.0	102.6	5.5	0.0	0.0

[그림 III-1] 냉·난방도일 전망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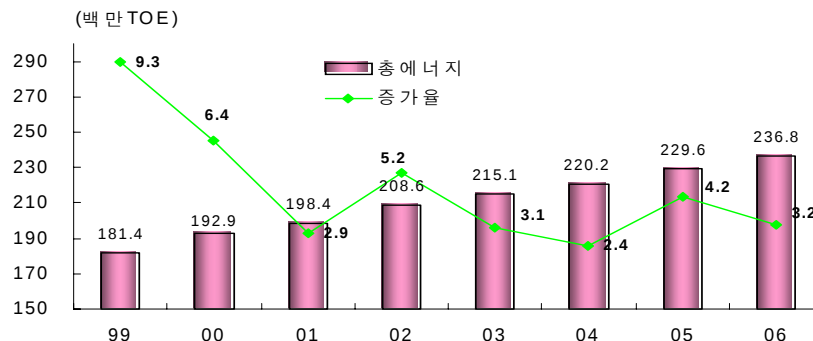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 총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전년대비 4.2% 증가한 229.6백만 TOE, 2006년에는 3.2% 증가한 236.8백만 TOE로 전망됨.

- 2005년의 총에너지수요 증가율은 경기부진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등 소비 둔화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3.9% 추정)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05년 1/4분기 및 4/4분기의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용 에너지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기인함
- 2005년의 에너지증가율 상승은 기후조건 외에도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수요 증대, 주 5일제 근무확산에 따른 수송용 연료수요 증가⁴⁾, 2004년의 수요 둔화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도 영향을 받음.

[그림 III-2] 총에너지수요 전망



- 2006년 총에너지수요는 경제성장률(5.0%) 상승 전망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가격 인상 2005년 난방용 수요 급증에 대한 기술적 반락,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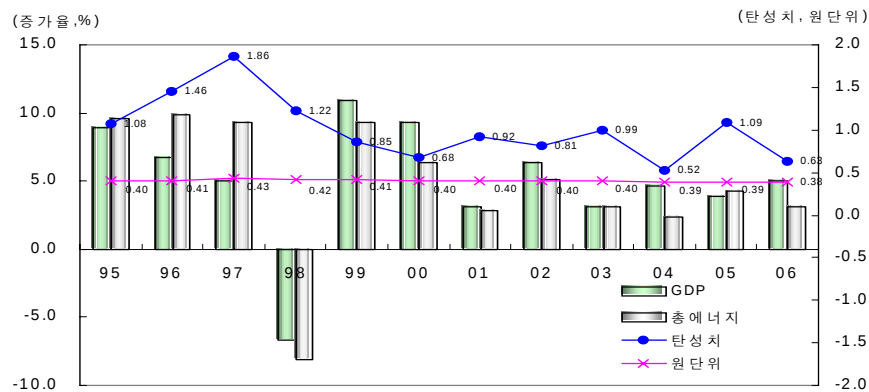
4)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과 금융·보험업·공기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 2002년 12월초 수도권 지역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통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의 주말 통행 중 출근·퇴근·업무통행을 제외한 통행 발생량은 5일 근무제 실시 이전보다 1인당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교통개발연구원, 「교통」, 2004.7).

-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동·하절기에 예외적인 기온변동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소비 패턴이 추세를 벗어나 일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함. 예를 들면, 2004년에 GDP탄성치가 0.52로 급락한 것은 겨울철의 온화한 날씨의 영향이 크며, 2005년에 GDP탄성치가 1.1(추정) 수준으로 상승한 것도 역시 추운 날씨가 주요 원인임.

<표 III-3> 에너지수요증가율 및 주요 지표

구분	'00	'01	'02	'03	'04	'05	'06
에너지소비증가율(%)	6.4	2.9	5.2	3.1	2.4	4.2	3.2
경제성장률(%)	9.3	3.1	6.3	3.1	4.6	3.9	5.0
에너지원단위	0.403	0.402	0.398	0.398	0.389	0.391	0.384
GDP 탄성치	0.68	0.92	0.81	0.99	0.52	1.09	0.63

[그림 III-3] 경제성장률 및 에너지수요 증가율



□ 석유수요는 2005년에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0.7%로 증가율이 2005년 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 석유수요가 고유가 상황 및 산업 활동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2004년 소비 감소에 대한 상대

적인 반등 효과와 석유화학산업의 납사에 대한 견실한 수요 증가, 주 5일근무제 확대 등에 기인함.

- 2006년 석유수요 둔화 전망은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수요 둔화(3.4% 증가), 국내 석유제품가격 인상, 전년도에의 수요 반등에 대한 상대적 반락 효과 등이 반영됨. 2005년 기준 총에너지의 15.1%를 차지하고 있는 납사의 수요 둔화 전망은 납사로부터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규모가 시설능력 증가 정제 및 정기보수 실시에 따라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표 III-4> 총에너지 수요 전망

분기	2005e					2006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석탄 (천톤)	20,052 (-1.8)	20,015 (2.7)	22,123 (8.2)	22,508 (3.5)	84,698 (3.1)	42,505 (6.1)	45,105 (1.1)	87,610 (3.4)
석유 (백만bbl)	207.4 (3.4)	180.0 (1.9)	177.4 (0.7)	199.4 (0.2)	764.2 (1.6)	388.1 (0.2)	381.5 (1.3)	769.7 (0.7)
LNG (천톤)	8,263 (4.7)	3,905 (-11.2)	3,690 (5.3)	7,004 (16.6)	22,863 (4.8)	13,344 (9.7)	12,032 (12.5)	25,377 (11.0)
수력 (TWh)	0.7 (-8.3)	1.2 (3.8)	2.1 (-27.3)	0.9 (-12.7)	4.9 (-15.9)	2.0 (0.8)	3.2 (6.6)	5.1 (4.3)
원자력 (TWh)	35.5 (18.2)	37.6 (22.1)	36.5 (2.6)	37.9 (10.4)	147.5 (12.8)	74.1 (1.3)	75.8 (1.9)	149.8 (1.6)
기타 (천TOE)	1,140 (25.2)	1,254 (26.4)	1,203 (26.2)	1,411 (25.8)	5,007 (25.9)	2,810 (17.4)	3,011 (15.2)	5,820 (16.2)
총에너지 (백만TOE)	61.6 (4.5)	53.1 (4.2)	53.5 (3.2)	61.4 (4.9)	229.6 (4.2)	118.6 (3.3)	118.3 (3.0)	236.8 (3.2)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원자력은 2005년에 올진 5,6호기(2,000MW) 가동에 따라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신규 설비증설이 없어 1% 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자력은 발전설비의 정기 유지보수기간 이외에는 상시 가동되므로 설비 증설이 없을 경우에 큰 폭의 발전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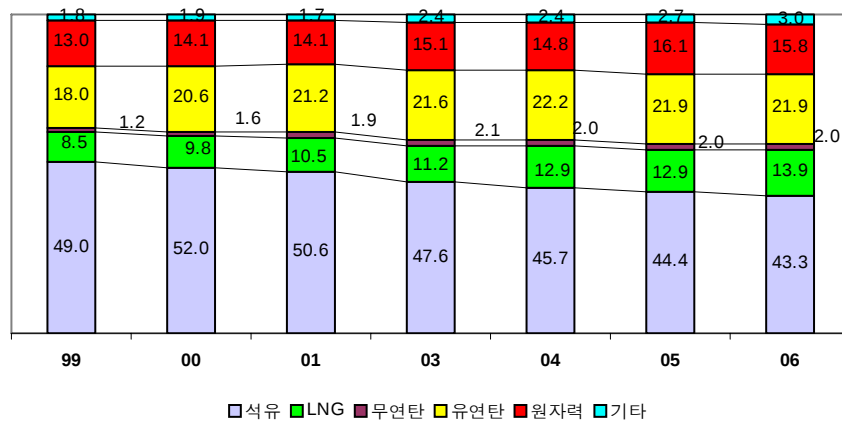
- LNG 수요는 2005년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대비 4.8%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증가율이 11% 내외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 2005년의 증가세 둔화는 원자력 신규설비 가동으로 발전용 수요가 부진한데 기인함.
 - 2006년의 LNG 수요는 발전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가율이 11% 내외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전체 발전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원자력의 설비증설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발전량의 상당부분을 LNG 발전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06년 도시가스용 LNG 수요는 전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상대적 반락효과로 인하여 3.2%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석탄 수요는 2005년에 발전용 수요 둔화, 산업용 수요 감소 등으로 3.1%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며, 2006년의 수요증가율은 2005년보다 약간 높은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06년의 발전용 수요는 유연탄 발전설비 증설(당진 6호기)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나, 산업용 수요는 포항제철소 제3고로의 유지보수(63일간)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가정·상업용 연탄 수요는 2005년에는 45.0%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원별 소비 점유율은 2005년 및 2006년에 전반적으로 과거의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석유의 비중은 1998년 54.6%로 크게 낮아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 45.7%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및 2006년에도 각각 44.4%, 43.3%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렇듯 석유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은 유가상승 및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최종 수요부문에서 도시가스 및 전력 등 타 에너지원으로 연료대체가 발생하는데 기인함.

- LNG 소비 비중은 2005년 12.9%, 2006년에는 1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5년에 LNG 소비비중이 전년과 같은 수준에 그치는 것은 신규 원자력 설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이며, 2006년의 점유율 확대는 신규 원전설비 가동이 없는데 따른 발전용 LNG 수요확대 전망이 반영된 것임. 상대적으로 청정한 연료이고 사용의 편리성도 갖춘 LNG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은 최종에너지원 가운데 전력의 비중 상승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석탄 소비 비중은 2005년에 전년대보다 다소 낮은 23.9%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LNG와 마찬가지로 신규 원전 가동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산업용 유연탄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석탄소비 비중은 2006년에도 23.9%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신규 원전설비 도입이 없는 2009년까지 석탄소비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2005년 원자력의 비중은 신규 설비의 가동에 힘입어 2004년보다 1.3% 포인트 상승한 16.1%가 될 전망이며, 2006년에는 15.8%로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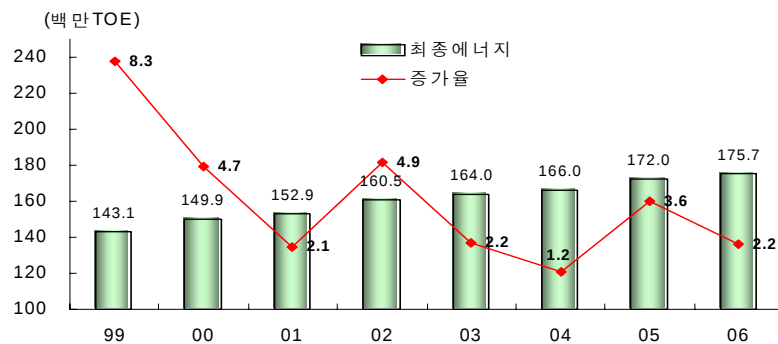
[그림 III-4] 에너지원별 총에너지수요 비중 (%)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최종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3.6%, 2006년에는 2.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상반기 최종에너지수요는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4분기의 추운 날씨, 원료유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가시화, 4/4분기의 추운 날씨 등으로 3.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2006년의 최종에너지수요 둔화 전망은 석유화학업의 납사수요 둔화 2005년의 난방용 수요 급증에 대한 상대적 반락, 국내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효과 등에 기인

[그림 III-5]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최종 수요부문별로는 2006년 산업부문의 에너지수요증가율이 산업활동 증가로 인해 2005년도 전망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는 경기회복세로 인한 산업활동 증가로 2.9%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용 전력은 전년과 비슷한 5.3%, 도시가스는 전년보다 둔화된 3.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석유는 연료용 수요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고 산업활동 증가로 납사를 제외한 비에너지유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대비 2.6%로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유연탄은 제철용 원료탄 수요와 시멘트 제조용 수요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0.8% 감소할 전망

<표 III-5>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구 분	2005e					2006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산 업 (백만TOE)	23.9 (2.0)	22.9 (2.1)	23.5 (4.0)	24.5 (0.4)	94.9 (2.1)	48.1 (2.7)	49.6 (3.1)	97.7 (2.9)
수 송 (백만TOE)	8.4 (1.0)	9.1 (3.6)	8.9 (0.8)	9.1 (4.2)	35.5 (2.4)	17.9 (1.8)	17.9 (0.0)	35.8 (0.9)
가·상·공 (백만TOE)	15.1 (7.8)	8.1 (5.9)	6.8 (6.7)	11.6 (12.0)	41.6 (8.4)	23.6 (1.5)	18.7 (1.7)	42.3 (1.6)
합 계 (백만TOE)	47.5 (3.6)	40.2 (3.2)	39.2 (3.7)	45.2 (3.9)	172.0 (3.6)	89.6 (2.2)	86.2 (2.1)	175.7 (2.2)
도시가스 (백만m ³)	6,951 (10.5)	3,426 (8.2)	2,096 (3.9)	4,612 (16.9)	17,084 (10.8)	10,754 (3.6)	6,936 (3.4)	17,690 (3.5)
석유 (백만bbl)	193.9 (1.8)	173.5 (2.2)	173.0 (1.8)	189.2 (0.1)	729.7 (1.5)	368.6 (0.3)	365.6 (0.9)	734.1 (0.6)
전력 (TWh)	84.8 (5.7)	80.1 (6.3)	83.1 (5.9)	84.4 (8.0)	332.4 (6.5)	174.9 (6.1)	177.9 (6.2)	352.8 (6.1)
석탄 (천톤)	8,351 (-1.2)	7,863 (-4.1)	8,817 (6.1)	9,541 (2.8)	34,572 (0.9)	16,445 (1.4)	18,228 (-0.7)	34,673 (0.3)
열/기타 (천TOE)	1,872 (22.2)	1,447 (24.1)	1,282 (25.5)	1,927 (24.2)	6,528 (23.8)	3,748 (12.9)	3,618 (12.8)	7,366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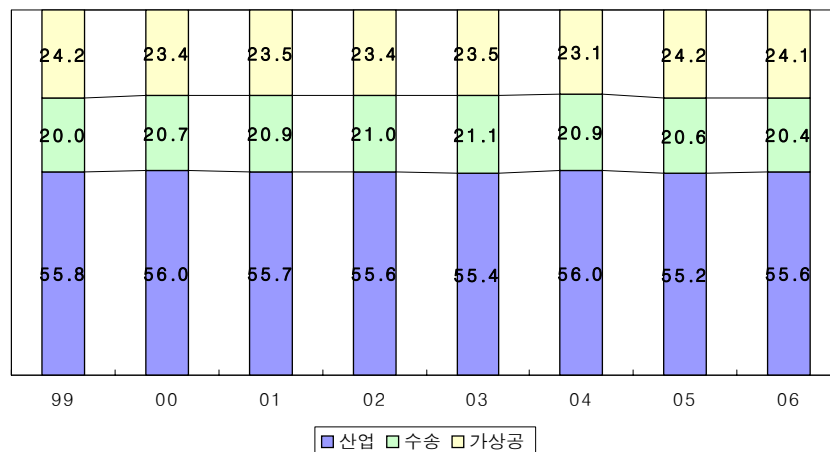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2004년에 감소하였던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2.4%,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은 전년도의 소비 감소에 대한 반등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06년에는 수송연료가격 인상 및 2005년 반등에 대한 기술적 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 내외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휘발유 수요는 3% 대의 감소율을 보일 전망이나, 산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수송경유 수요는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몇 년간의 수송부문의 낮은 수요 증가세는 고유가 상황 지속 경제의 저성장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여건에 변동이 없을 경우, 당분간 수요증가율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가정·상업·공공부문은 2005년에 기온효과의 영향으로 8.4%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나, 2006년에는 2005년의 난방용 수요 증대에 대한 상대적 반락효과로 인하여 2% 이하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 2006년의 부문별 수요점유율은 산업용의 비중이 55.6%로 가장 높고 수송용은 20.4%, 가정·상업·공공부문은 24.1% 수준으로 전망됨.

〔그림 III-6〕 부문별 최종에너지수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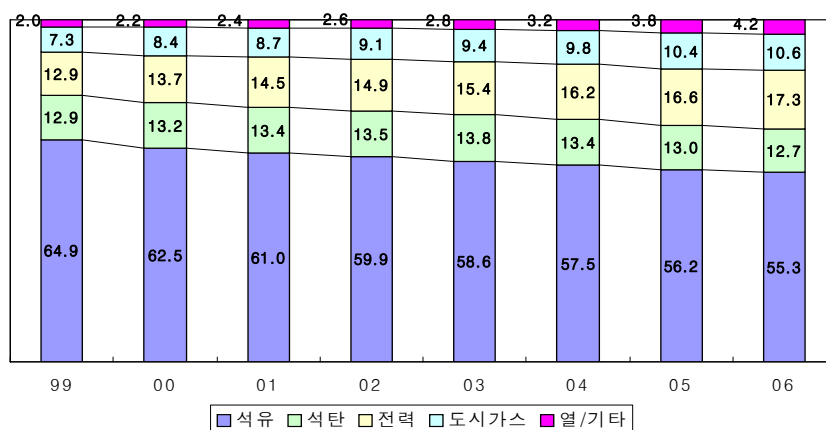
- 최종에너지 소비를 원별로 보면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증가율이 2005년보다 2006년에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유류가격이 상승하면서 2004년에 감소하였던 석유제품 소비는 2005년에 가격효과가 감소하고 전년의 소비부진에 대한 상대적 영향으로 1.5%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원료유 및 수송 경유수요는 증가하지만 휘발유, 난방 연료유 수요 감소 등으로 증가율이 0.6%로 둔화될 전망이다.

- 전력수요는 2005년에 상업용 수요 증가(9.1%)에 힘입어 6.5% 증가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6.1%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도시가스는 2005년에 1/4분기 및 4/4분기의 소비 급증으로 10.8% 증가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3%대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열 및 신재생 에너지는 급증세를 지속하여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23.8%, 12.8%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석탄 소비는 2005년에 상반기의 소비 감소(-2.6%)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수요가 반등하여 연간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할 전망이나, 2006년에는 증가율이 0.3%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 2006년도 최종에너지의 소비 구성비를 보면 도시가스와 전력의 비중은 상승하나 석유와 석탄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의 소비 비중은 2004년 57.5%에서 2005년 56.2%, 2006년 55.3%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도시가스는 2005년 10.4%, 2006년 10.6%의 점유율을 보일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는 전력은 2004년 16.2%에서 2006년에는 17.3%로 점유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석탄의 비중은 2006년에 12.7% 수준으로 예상됨.

[그림 III-7]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수요 비중(%)



<'06 에너지수요전망의 시사점>

- 2006년도의 에너지수요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0%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3.2%, 최종에너지는 2.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증가율 둔화 전망은 국내 에너지가격 인상 날씨의 영향에 따른 2005년 수요반등에 대한 기술적 반락효과 등이 반영
-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에너지저소비형으로의 사회·경제구조 전환 등으로 에너지수요증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임.
- 에너지소비는 기후여건의 일시적 변화(예, 2005년도의 이상 저온)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절기 및 하절기 이상 기후에 대비한 에너지수급 관리가 중요함
- 2006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없기 때문에 타 발전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동절기의 최대부하 상승 및 전력수요량 증대 추세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경우 동절기의 발전용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 상존
 - 2009년까지 원전의 추가증설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LNG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
- 서민용 연료인 연탄의 수요가 2005년에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이는 등유에 대한 상대가격 하락으로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된데 기인함. 국내 무연탄 수급상황을 고려한 연탄에 대한 수요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

3. 석유제품 수요 전망

- 2005년 4/4분기에 국내 석유제품 수요는 수송부문 석유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납사를 중심으로 한 비에너지유의 소비가 2001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석유수요증가는 0.4%로 둔화될 전망이다. 2006년에는 점차 수요가 증가하지만 전년대비 0.7%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2005년 4/4분기에는 수송부문, 2006년은 산업원료의 수요 증가가 전체 석유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부문별 구성비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산업원료의 비중이 늘고 그 외 다른 부문은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 수송부문은 2005년 4/4분기 석유제품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12월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사용이 늘고, 항공부문 파업이 종결되면서 항공수요도 크게 늘어서 3.9%의 증가가 예상됨. 2006년의 경우 고유가 지속과 산업생산 및 수출 호조의 영향이 혼재되어 상반기 1.1%, 하반기 -0.3%로 연간 0.4% 증가로 주춤할 전망이다.
 - 산업부문의 경우 2005년 10~11월 납사수요 감소로 산업용 원료 수요가 2001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06년은 연료수요 감소와 원료수요 증가 추세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며, 연료수요 감소추세가 다소 완화되고(2005년 -5.7% → 2006년 -2.6%) 원료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2005년 3.5% → 2006년 4.1%) 산업부문 석유제품 수요증가가 전체 석유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 가정·상업·공공부문은 4/4분기 난방용 석유수요 증가로 석유소비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고유가가 지속되고 평균기온이 유지될 경우 2006년에는 다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전환부문은 2005년 울진 5, 6호기의 가동과 2006년 LNG 발전 확대의 영향으로 2.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표 III-6>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 전망

(단위: 백만bbl)

	2005e					2006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수 송	60.6 (1.3)	65.5 (3.2)	63.8 (0.6)	64.8 (3.9)	254.7 (2.3)	127.5 (1.1)	128.3 (-0.3)	255.8 (0.4)
산 업	100.1 (2.4)	93.3 (2.8)	95.9 (2.5)	98.7 (-2.3)	388.0 (1.3)	196.7 (1.7)	201.2 (3.4)	397.9 (2.6)
-연료	24.1 (-6.1)	20.6 (-6.8)	19.2 (-6.3)	23.3 (-3.7)	87.3 (-5.7)	43.8 (-2.2)	41.3 (-2.9)	85.0 (-2.6)
-원료	75.9 (5.5)	72.7 (5.8)	76.7 (5.0)	75.4 (-1.9)	300.7 (3.5)	153.0 (2.9)	159.9 (5.1)	312.9 (4.1)
가정상업공공	33.3 (1.0)	14.8 (-5.8)	13.3 (2.8)	25.7 (0.5)	87.0 (-0.1)	44.3 (-7.7)	36.1 (-7.4)	80.5 (-7.5)
전 환	13.5 (33.0)	6.4 (-3.8)	4.3 (-30.5)	10.4 (5.1)	34.8 (5.2)	19.5 (-2.2)	16.1 (9.0)	35.6 (2.6)
석 유 계	207.4 (3.4)	180.0 (1.9)	177.4 (0.7)	199.7 (0.4)	764.5 (1.6)	388.1 (0.2)	381.7 (1.2)	769.8 (0.7)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주요 석유제품별로 살펴보면, 휘발유가 2005년 4/4분기 소폭 증가하나 2006년에는 고유가의 지속으로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납사를 포함한 비에너지유의 경우 2005년 4/4분기 감소할 것이나 2006년에는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 휘발유 수요는 제품가격 안정과 추운 날씨로 인한 자가용 사용 증가, 신차 출시 등으로 2005년 4/4분기는 약간 상승(0.7%)할 전망이나 2005년 상반기 수요급증 대한 상대적 효과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2006년에는 -3.5%로 감소할 전망이다.
- 수송용 경유는 내수경기가 회복되면서 2005년 4/4분기 수요 감소폭이 줄고(3/4분기 -2.3% → 4/4분기 -0.2%), 2006년은 지난해 감소로 인한 상대적 상승효과가 겹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등·경유(수송경유 제외)는 감소추세에 변화가 없으며 감소폭도 지난해와 비슷한 -6.4%를 유지할 전망이다.
- 중유 수요는 수송용과 가정상업용 수요의 증가로 인해 2005년 4/4분기에 2.1% 증가가 예상됨. 2006년은 발전용수요 변동의 영향으로 전반기 -2.2%의 감소, 하반기 0.4%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III-7> 주요 석유제품 수요 전망

(단위: 백만bbl)

구 분	2005e					2006e		
	1/4p	2/4p	3/4e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휘발유	14.3 (6.4)	15.1 (6.6)	15.5 (-2.7)	14.8 (0.7)	59.6 (2.5)	28.2 (-3.9)	29.3 (-3.2)	57.5 (-3.5)
수송경유	25.9 (-2.2)	30.3 (1.9)	26.2 (-2.3)	29.0 (-0.2)	111.3 (-0.6)	58.1 (3.5)	55.0 (-0.3)	113.2 (1.6)
등유+경유 (발전용 포함)	26.4 (-6.4)	11.9 (-8.6)	10.2 (-7.3)	21.4 (-5.5)	69.9 (-6.6)	36.1 (-5.6)	29.3 (-7.3)	65.4 (-6.4)
중 유 (발전용 포함)	32.9 (4.6)	22.8 (-4.1)	20.0 (-8.2)	28.5 (2.1)	104.3 (-0.7)	54.5 (-2.2)	48.7 (0.4)	103.2 (-1.0)
납 사	70.6 (6.5)	65.7 (7.1)	69.7 (4.4)	67.3 (-1.8)	273.3 (4.0)	138.8 (1.8)	143.7 (4.9)	282.5 (3.4)
LPG (발전용 포함)	24.5 (4.9)	20.8 (-4.8)	22.0 (6.6)	24.4 (7.7)	91.6 (3.6)	45.0 (-0.5)	45.7 (-1.4)	90.7 (-1.0)

주) 등유+경유: 경유(수송용 제외),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소비량의 합.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그동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왔던 납사수요가 감소함(-1.8%)으로써 비에너지 부문 석유수요가 2005년 4/4분기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임. 하지만, 국제석유화학산업의 호경기가 2007년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며 경기의 급락 가능성이 별로 없어, 2006년 납사수요는 2005년에 비해 약간 낮은 3.4%의 증가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 LPG 수요는 수송부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부문의 수요가 감소하여 2006년 -1.0% 감소할 전망이다.

4. 전력 수요 전망

- 2006년 전력수요는 경기회복 전망(성장률 5.0%)에도 불구하고 2005년 수요증가율 보다 0.4% 포인트 낮은 6.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5년의 전력수요는 경기 부진(성장률 3.9%)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수요가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6.5%의 견조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의 전력수요는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6.1%로 증가율이 약간 둔화될 전망이다. 2006년 수요 둔화 전망에는 기후 조건에 따른 2005년 증가율 상승에 대한 기술적 반박의 영향이 일부 반영됨.
- 부문별 전력수요를 보면, 상업용 수요가 2006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용 및 가정용은 5%대의 수요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표 III-8> 전력수요 전망

(단위 : TW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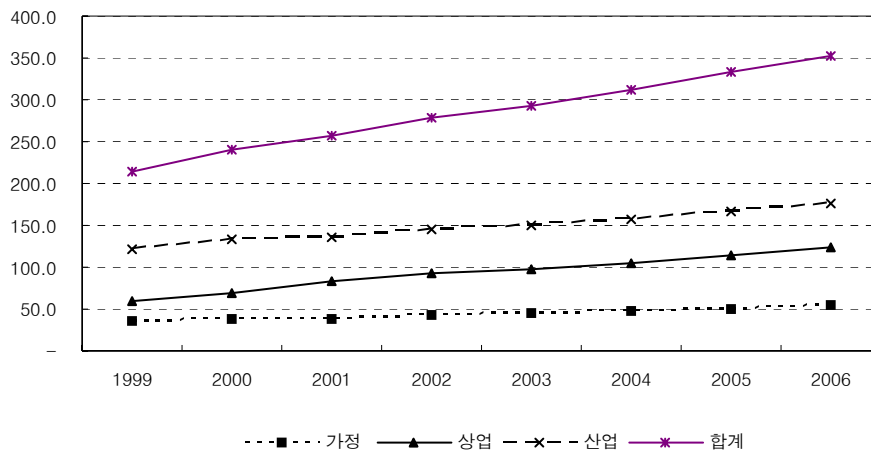
	2005e					2006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가정용	13.0 (4.5)	12.2 (5.6)	13.1 (3.4)	12.6 (5.3)	50.9 (4.6)	26.7 (6.0)	27.1 (5.4)	53.8 (5.7)
상업용	31.5 (8.5)	26.3 (8.4)	28.4 (7.7)	28.5 (12.0)	114.7 (9.1)	61.4 (6.2)	61.9 (8.9)	123.4 (7.6)
산업용	40.2 (4.0)	41.6 (5.3)	41.7 (5.6)	43.3 (6.4)	166.8 (5.3)	86.7 (6.0)	88.9 (4.6)	175.6 (5.3)
총계	84.8 (5.7)	80.1 (6.3)	83.1 (5.9)	84.4 (8.0)	332.4 (6.5)	174.9 (6.1)	177.9 (6.2)	352.8 (6.1)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상업용 수요는 2005년에 9.1% 증가할 전망이나, 2006년에는 전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증가율이 7.6%로 둔화될 전망이다. 상업용 수요는 2003년부터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산업용 수요는 2005년에 5.3% 증가할 전망이며, 2006년에도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의 수요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5.4%)을 반영하여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4.6%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2005년 가정용 수요는 2004년 여름철 고온현상에 의한 수요 반등(9.1% 증가)의 상대적 영향과 2005년 여름철의 저온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6%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2006년에는 5.7%로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I-8〕 전력 수요 전망

(단위 : T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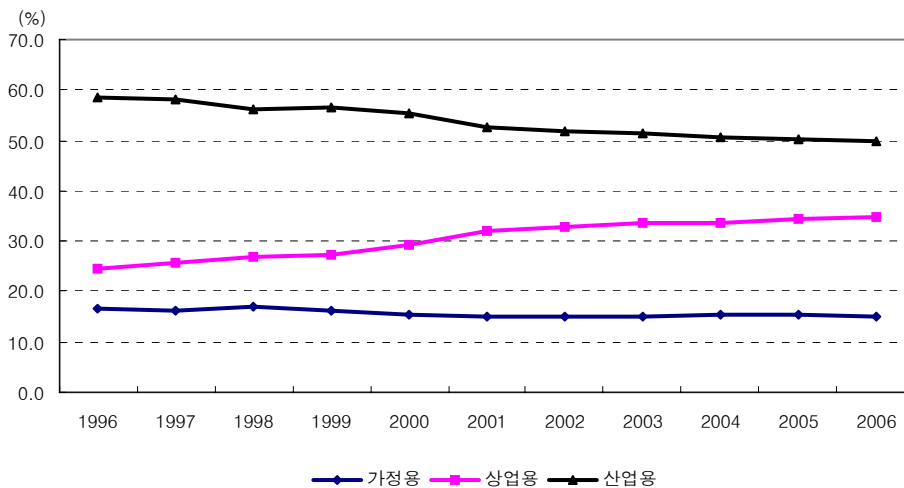
□ 부문별 전력 수요 비중은 과거의 추세를 이어 산업용은 감소하고 상업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문의 전력수요 점유율은 2001년 52.7%에서 2004년에는 50.7%로 낮

아졌으며, 2005년 및 2006년에도 50.2%, 49.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상업용의 경우는 반대로 2001년 32.1%에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여 2004년에는 33.7%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는 34.5%, 2006년에는 35.0%까지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가정용 전력의 점유율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15.2%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2004년에는 여름철 고온현상에 따른 냉방소비 증가로 일시적으로 15.6%까지 상승하였으나 2005년 15.3%, 2006년 15.2%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 전력 소비의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01년까지는 상업용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용과 가정용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였음. 2002년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점유율 변화 정도는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I-9]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5. LNG 및 도시가스 수요 전망

- 2005년 LNG 수요는 2004년 대비 4.8% 증가한 22,863천톤으로 예측됨.
 - 2005년 4/4분기 발전용 LNG 수요는 겨울철의 추운날씨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LNG 발전 가동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4/4분기 발전용 LNG 수요의 높은 증가폭에 불구하고 1/4분기와 2/4분기의 수요감소 영향으로 2005년 발전용 LNG 수요는 8,783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4/4분기 도시가스용 LNG 수요는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추운 기후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한 4,334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05년 도시가스용 LNG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한 13,861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LNG 수요는 2005년 대비 11.0% 증가한 25,377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까지 원자력 발전설비 증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2006년도에 추가로 증가하는 전력사용량의 상당분을 LNG 발전이 담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전용 LNG 소비는 2006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20.9% 증가하며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2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6년 발전용 LNG 수요는 총 10,749천톤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도시가스 소비는 기후의 영향에 크게 반응함에 따라 2006년에 평년기온을 가정하면 도시가스용 LNG 소비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되어 2006년 상반기와 하반기 도시가스용 LNG 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2006년 총 도시가스용 LNG 수요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14,302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I-9> LNG 수요 전망

(단위: 천톤)

구 분	2005e					2006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도시가스용	5,623 (12.5)	2,268 (4.6)	1,637 (3.8)	4,334 (15.3)	13,861 (10.9)	8,143 (3.2)	6,159 (3.2)	14,302 (3.2)
발 전 용	2,545 (-6.8)	1,616 (-24.4)	2,021 (9.9)	2,602 (23.1)	8,783 (-0.4)	5,030 (20.9)	5,719 (23.7)	10,749 (22.4)
L N G 계	8,263 (4.7)	3,905 (-11.2)	3,690 (5.3)	7,004 (16.6)	22,863 (4.8)	13,344 (9.7)	12,032 (12.5)	25,377 (11.0)

-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2. LNG계는 자체소비가 포함된 1차에너지 총량을 의미함.
 3. 발전용 LNG에는 지역난방 및 자가발전 LNG 투입량도 포함되어 있음.

- 2005년 도시가스 수요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17,084백만 m^3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년대비 겨울철 기온이 매우 추울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정용과 상업용 수요의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2005년 4/4분기 도시가스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17.0% 증가한 4,612백만 m^3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가정용 도시가스의 수요는 전년대비 10.9% 증가한 9,116백만 m^3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4/4분기의 기온이 전년동기대비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후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도시가스의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한 2,584백만 m^3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가정용 도시가스 수용가수의 증가율은 5% 중반대의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III-10> 도시가스 수요 전망

(단위: 백만 m^3)

구 분	2005e					2006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가 정 용	4,266 (8.1)	1,741 (6.9)	526 (-2.9)	2,584 (22.9)	9,116 (10.9)	6,174 (2.8)	3,148 (1.2)	9,322 (2.3)
상 업 용	1,265 (22.3)	571 (14.0)	581 (9.9)	786 (20.3)	3,204 (17.9)	1,929 (5.0)	1,435 (4.9)	3,363 (5.0)
산 업 용	1,325 (8.3)	1,013 (5.0)	881 (0.9)	1,148 (3.2)	4,366 (4.6)	2,439 (4.4)	2,093 (3.2)	4,533 (3.8)
도시가스 계	6,951 (10.5)	3,426 (8.2)	2,096 (3.9)	4,612 (17.0)	17,084 (10.8)	10,754 (3.6)	6,936 (3.4)	17,690 (3.5)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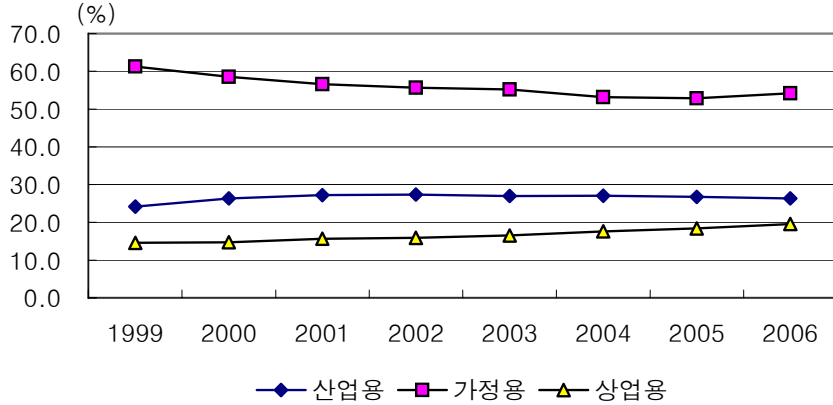
2. 도시가스계에는 열병합발전 및 수송용에 사용된 물량이 포함되어 있음.

- 2005년 상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전년대비 17.9% 증가한 3,204백만 m^3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4/4분기 상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전년 동기에 비해 추운 기후영향과 20% 후반대의 높은 수용가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0.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상업부문은 신규 상업시설 건설과 연료대체가 활발히 지속되어 왔으며 향후 몇 년 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도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4,366백만 m^3 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부문의 수요는 전반기 산업 활동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지만 산업용 도시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종, 특히 금속제품 및 산업기계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 및 감소와 설비투자 둔화로 인해 2005년 3/4분기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2005년 4/4분기에는 증가폭이 다소 회복되며 전년동기대비 3.2%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006년도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17,690백만 m^3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평년기온과 GDP 성장률 상반기 5.4%, 하반기 4.7%를 가정할 때 도시가스 수요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3.5%와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05년에는 겨울철 기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2005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상대적 효과로 2006년의 도시가스 소비 증가율은 비교적 낮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한 9,322백만 m^3 를, 상업용 수요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3,363백만 m^3 , 산업용 수요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4,533백만 m^3 를 기록할 전망이다.
 - 가정용 도시가스의 경우 기온 효과에 따른 수요의 변화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평년기온을 가정하고 GDP 성장률 상반기 5.4%, 하반기 4.7%를 가정할 때 2005년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상대적 효과로 2006년도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 증가는 낮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상업용 도시가스 또한 기온 효과에 의한 수요 변화 폭에 크게 좌우되어 2005년도의 높은 수요 증가율에 대한 상대적 효과로 2006년에는 낮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용가수의 증가가 여전히 높은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용 수요 증가율 보다는 높은 전년대비 5.0%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용 도시가스는 2006년 산업활동 전망을 고려하고 기존 도시가스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들의 설비 증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년대비 3.8%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그림 III-10]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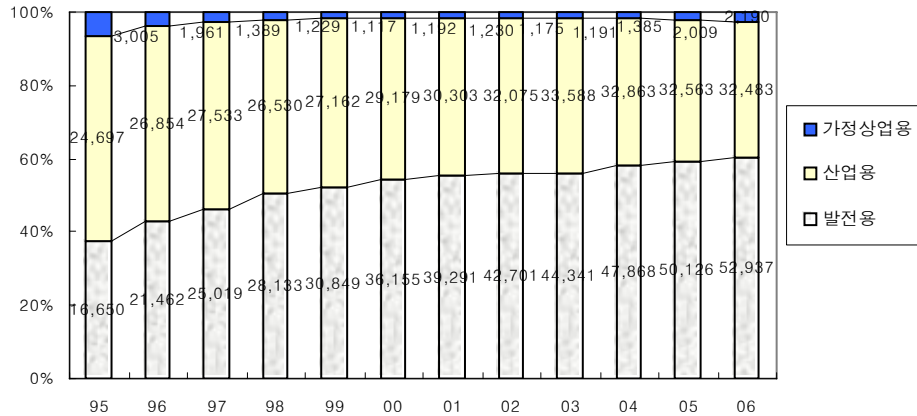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 석탄수요는 2005년에 전년대비 3.1% 증가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3.4%로 2005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석탄수요를 용도별로 보면, 발전용 석탄은 2005년에 원전 설비증설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8.0%)보다 크게 둔화된 4.7%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06년에는 설비 증설[당진 석탄 5, 6호기(1,000MW)] 등으로 5.6%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 산업용 석탄은 2005년에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감소세가 약간 둔화되어 -0.2%의 감소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가정·상업용 수요는 경기둔화 지속 및 석유가격 급등으로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부각되어 화훼단지, 소규모 상업시설 및 저소득층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2005년에 45.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6년에도 연탄가격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0% 내외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III-11〕 용도별 석탄수요 및 점유율 전망

(단위: 천톤)



- 총 석탄수요에서 차지하는 발전용 수요의 비중은 2003년 56.0%에서 2004년에 58.3%로 늘어났으며, 2005년 및 2006년에는 각각 59.2%, 60.4%로 상승할 전망이다. 산업용 석탄의 비중은 2003년 42.5%에서 2005년 38.4%, 2006년에는 37.1%로 하락할 전망이다. 가정·상업용 수요 비중은 연탄소비 급등전망에 따라 2004년 1.7%에서 2005년 2.4%, 2006년에는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 무연탄 수요는 2005년에 가정·상업용 수요의 급증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3.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가정·상업용 무연탄수요는 등유 대비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석유 대체 수요 증가로 2004년에 16.3% 증가하였으며, 2005년 및 2006년에는 각각 45.0%, 9.1% 증가할 전망이다.
- 1998년 이후 급등세를 보여 온 산업용 무연탄 수요는 제철공정의 원료용 수요 증가세가 꺾이면서 2004년에 6.1%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전년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3%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III-11> 석탄 수요 전망

(단위: 천톤)

구 분	2005e					2006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무연탄계	2,109 (-1.7)	1,587 (-8.5)	2,232 (17.0)	2,712 (15.4)	8,640 (6.2)	3,927 (6.3)	5,028 (1.7)	8,956 (3.7)
가정 · 상업	539 (58.5)	178 (52.1)	279 (74.4)	1,013 (31.8)	2,009 (45.0)	881 (22.8)	1,310 (1.4)	2,190 (9.1)
산업	1,053 (-6.2)	761 (-19.1)	1,351 (17.3)	1,247 (5.5)	4,412 (0.3)	1,880 (3.6)	2,681 (3.2)	4,560 (3.4)
발전	517 (-24.3)	648 (-4.3)	602 (1.2)	453 (12.9)	2,220 (-5.8)	1,167 (0.2)	1,038 (-1.6)	2,205 (-0.7)
유연탄계	17,942 (-1.9)	18,428 (3.8)	19,891 (7.3)	19,796 (2.0)	76,058 (2.8)	38,578 (6.1)	40,077 (1.0)	78,655 (3.4)
제철	5,092 (-1.5)	4,975 (-3.6)	5,548 (6.7)	5,353 (0.8)	20,968 (0.6)	10,214 (1.5)	10,666 (-2.2)	20,880 (-0.4)
시멘트	1,033 (-12.8)	1,398 (-4.0)	1,117 (-10.9)	1,325 (-6.3)	4,873 (-8.2)	2,296 (-5.6)	2,414 (-1.2)	4,710 (-3.4)
기타산업	633 (-0.5)	551 (4.6)	522 (-4.4)	603 (-1.0)	2,310 (-0.4)	1,174 (-0.8)	1,159 (3.0)	2,333 (1.0)
발전	11,184 (-1.0)	11,504 (8.5)	12,704 (10.1)	12,514 (3.7)	47,906 (5.3)	24,894 (9.7)	25,838 (2.5)	50,732 (5.9)
석탄계	20,052 (-1.9)	20,015 (2.7)	22,123 (8.2)	22,508 (3.5)	84,698 (3.1)	42,505 (6.1)	45,105 (1.1)	87,610 (3.4)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발전용 무연탄 수요는 2005년에 전년 대비 6% 내외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는 감소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전량 국내산이 사용되는 발전용 무연탄은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20~230만 톤 수준의 수요는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유연탄 수요는 2005년에 산업용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발전용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3.1%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06년에는 발전용 수요 증가에 힘입어 3.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일관제철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철용 유연탄 수요는 상반기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2고로의 개보수로 인한 가동정지(66일간)의 영향으로 2005년에 0.6%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포항제철소 제3고로의 개보수(63일간) 계획으로 소폭(-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수요는 2005년에 건설투자 부진 및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져 8%대의 감소율을 보일 전망이다. 2006년에는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다소 완화되어 수요 감소세가 둔화(-3.4%)될 전망이다.
 -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투입에너지로 주로 이용되는 기타 산업용 유연탄 수요는 2005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0.4%)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는 1%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기타 산업용 유연탄 수요는 230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2005년의 발전용 유연탄 수요는 설비증설 저조 원전 설비증설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9.3%)보다 둔화된 5%대 중반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06년에는 설비증설의 영향으로 수요증가율이 약간 상승(5.9%)할 것으로 전망됨.
- 열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기온효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3% 내외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2006년에는 2005년의 반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1%대 중반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2005년 열에너지 수요는 2004년 동절기의 온화한 날씨에 대한 기술적 반등 및 2005년 1/4분기, 4/4분기의 추운 날씨로 인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의 열에너지 수요는 평년 기온을 가정할 경우 2005년의 추운 날씨에 대한 기술적 반락으로 인해 1.7%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는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2005년에 전년 대비 2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표 III-12> 열에너지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 분	2005e					2006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열에너지	731 (15.8)	193 (3.6)	80 (-4.1)	516 (16.8)	1,520 (13.2)	938 (1.5)	608 (2.0)	1,546 (1.7)
신재생/기타	1,140 (25.2)	1,254 (26.4)	1,203 (26.2)	1,411 (25.8)	5,007 (25.9)	2,810 (17.4)	3,011 (15.2)	5,820 (16.2)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KEEI 에너지수요전망 (제7권 제4호)

2006년 1월 10일 인쇄

2006년 1월 12일 발행

發行人 方基烈

發行處 **에너지경제연구원**

437-711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전화: (031)420-2114(代), 팩시밀리: (031)422-4958

登 錄 1992년 12월 7일 제7호

印 刷 범신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ISSN 1599-9009

* 破本은 交換해 드립니다.

값 5,000원